

## 정용진 회장, 첫 ‘쇄신인사’... 신세계 ‘비상 경영’ 속도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 경질 ‘사상 첫 적자’ 이마트 희망퇴직 그룹 경영전략 회의 직접 주재 임원, 수시인사·성과지표 수립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는 등 승진 이후 처음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정 회장이 그룹 캐시카우인 이마트 구조조정에서 이어 신세계건설 대표까지 전격 교체하며 ‘비상 경영’에 속도를 내자, 신세계그룹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신세계건설 영업본부장과 영업단

당도 함께 경질하기로 했다. 신세계건설 대표 후임 인사로는 ‘재무통’인 허병훈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 회장의 승진 이후 그룹 차원에서 단행한 첫 쇄신 인사이자 문책성 인사다. 이마트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해 187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로 인해 이마트가 사상 첫 연간 적자를 냈다.

정 회장이 신세계건설 수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그룹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됐다. 앞서 정 회장은 그룹 캐시카우인 이마트의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이마트는 이달 12일

까지 수석부장-과장급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2009년 3월 1일 이전 입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그간 이마트 점포별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199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낸 이마트는 ‘본업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마트의 대형마트 사업부(할인점)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12조8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29억 원으로 48% 급감했다.

이번 정 회장의 경질 인사를 두고 신세계그룹의 ‘쇄신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회장은 작년 11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경영전략실’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조직·시스템·업무방식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맞춰 경영전략실은 내부적으로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새로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정기인사 틀을 깨고 수시 임원인사 방침을 밝혔다. KPI를 토대로 기대한 실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을 수시로 교체하겠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지금 시장과 고객은 신세계가 1위 회사가 맞느냐고 묻고 있고,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신년사에서 엄중 경고했다.

정 회장이 수시 임원인사 값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자, 이마트를 비롯해 계열사 전

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 적자를 낸 SSG닷컴, G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와 편의점 이마트24 등이 수익성 개선 난제를 앞두고 있어 목이 타는 상황이다. 이마트 IR자료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작년 23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SSG닷컴과 G마켓은 지난해 각각 1030억 원, 321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매출도 줄었다. 두 회사는 전년 대비 각각 3.8%, 9.2% 감소해 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정기인사에서 수시인사로 전환하겠다고 한 뒤, 첫 사례가 경질성 교체 인사이고, 아예 ‘쇄신 인사’라고 못 박았다”며 “이로 인해 신세계그룹 각 계열사 대표와 주요 임원, 임직원 모두 당분간 살얼음판을 걷는 심경일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삼성전자 3년만에 시총 500조 회복... 달러 초강세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모니터에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 대비 3000원(3.66%) 오른 8만5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도 3년 만에 500조 원(507조 4315억 원)을 회복했다. 달러 강세도 이어졌다.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원 어치 주식을 소매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352.1원까지 뛰었다. 증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5·18면 신태현 기자 holjjak@

## 소비자물가 두달째 3%대 상승 尹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 투입”

사과·배 88% 폭등 사상 최대 석유류도 14개월만에 오름세 통계와 체감물가 격차 생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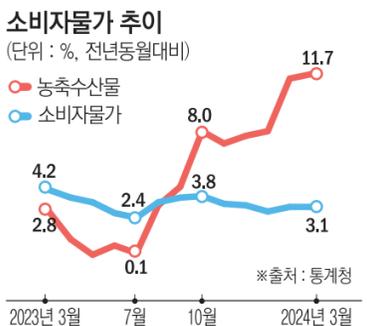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유가 불안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2월(3.1%)과 같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물렀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3월 연속으로 3%대를 이어갔다. 물가 오름세를 이끈 품목은 이번에도 과일류 중심의 농산물이었다. 축산물(2.1%)과 수산물(1.7%)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농산물은 20.5% 뛰었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물은 2021년 4월(13.2%) 이후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1.7%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사과가 작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도 87.8% 올라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굴(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일 물가지수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 정부가 1500억 원의 긴급재정을 투입해 전폭적인 납품단가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별도의 할인은 통계청 조사에 선별적으로 반영되다 보니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격차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석유류도 1.2% 상승하면서 물가지수



를 밀어 올렸다. 석유류가 전년 동월보다 오른 것은 2023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2.4% 올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적극적으로 물가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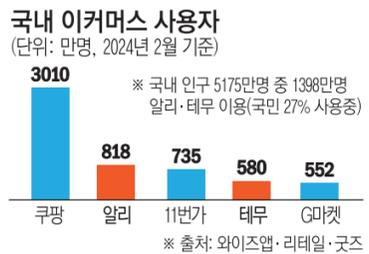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문제는 이커머스 아냐”... 국가안보 터는 중플랫폼

알리·테무·왕둥 경제안보 10  
국민 27% 중국 이커머스 이용 개인정보 침해·피싱 피해 우려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위인 등 중국발(發) 이커머스가 국내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경제 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네이버·쿠팡 등이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생태계가 이들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제조·물류·금융 등의 산업 기반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1398만 명(2월 기준)을 넘어섰다. 국민 27%가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꼴이다. 중국 이커머스의 종속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국 플랫폼이 보유한 회



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알리와 테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방침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리·테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플랫폼의 위험성을 체감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 플랫폼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말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우려 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

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하원은 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을 처리했다. 테무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나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은 고사하고, 국내 기업들은 규제 공포, 역차별 속에서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도 이날 한국 법인(웨일코 코리아)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테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웨일코(Whaleco)로 등록돼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핸드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면 2~3차 개인정보 침해나 보이스 피싱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이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 인뱅집 막내아들 '토뱅'... 2년여 만에 '혁신금융 효자' 등극

## ② '금융 개척자' 토스뱅크

'은행→고객 중심' 무게추 이동 중·저신용자 대출 1금융권 1위 상식 뒤엎는 포용·혁신 서비스 1000만 가입자 달성 9부 능선 이은미號 출범...순익 흑자원년



'행보다 나은 아우'. 토스뱅크를 일컫는 말이다. 세상에 없던 금융을 제공해왔던 당찬 막내는 금융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금융 산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외침은 현실이 됐다. 내놓는 서비스마다 기존 상식을 뒤엎었다. 지금 이자 받기나, 먼저 이자 받기는 이자에 대한 가치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자=나중에 받는 것'이라는 금융 공식을 깬 토스뱅크만의 혁신이었다. 금융

위원회 적격심사에서 한 차례 낙방한 뒤 재수 끝에 2021년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으로 뒤늦게 전선에 뛰어들었다. 토스뱅크는 어느덧 1000만 가입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받은 유일한 은행이다.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1호', 카카오뱅크는 '압도적 인뱅 1위'라는 타이틀과 달리 뒤늦게 출발했지만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이다. 즉,

디지털 혁신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선한 영향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2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입자 수는 983만 명을 기록 중이다. 상반기 내 10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 5개월 만의 성적표다. 가입자 수와 함께 여·수신에서도 고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 13조6000억원, 수신잔액 27조1000억원, 예대율 58.2%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첫 분기 흑자 전환도 달성

했다. 이는 2분기 연속 이어졌다. 이 같은 성장에는 혁신 상품이 견인했다는 평가다. 올해 초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대표적 서비스인 외화통장 내세운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출시 21일 만에 60만 계좌를 돌파했다. 하루 평균 2만8500여 계좌 이상이 신규 계좌로 개설된 것으로 3초에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도 금융의 고정

관념을 흔들어 놓은 예다. 과거에는 월 단위로 제공되던 이자를 고객 의사에 따라 일 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31.54%다. 제1금융권 은행 중 가장 높다. 지난 2년간 중·저신용자에게 5조1600억 원의 신용대출을 공급,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중 가장 먼저 정책·상생 금융을 공급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5.5% 저금리로 대환하는 사장님 대환대출, 중·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등도 선보였다. 은행 건전성 강화와 차주의 연쇄부실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막내'인 토스뱅크의 추격전에 불이 붙은 가운데 새로운 수장인 이은미 최고경영자(CEO)의 과제도 막중하게 됐다. 이은미 CEO는 지난달 28일 취임식에서 "2024년을 토스뱅크 첫 연간 흑자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법근 기자 nova@

## "이자 먼저 받는 예금? ... 상상 뛰어넘은 실행력, 우리 강점"



인터뷰 | 송관석 토스뱅크 프로덕트오너(PO)

"인터넷전문은행 중 후발주자이다 보니 경쟁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이 혁신상품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같은 상품이지만 새롭게, 고객이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 팀원들과 연구하고 있어요." 국내 세 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서 수신상품을 총괄하는 송관석 프로덕트오너(PO)는 자사의 혁신 비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송 PO는 디파짓스쿼드(Deposit Squad)를 이끄는 책임자다. 스쿼드 조직은 개발자, 정책 담당자,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등이 포함돼 있다. 각각의 부서가 나뉘어 있는 시중은행과는 다른 형태다. 송 PO가 총괄하는 디파짓스쿼드는 11명으로 나뉜(?) 토스뱅크 내에서는 큰 조직에 속한다.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가벼운 조직이지만 다양성을 무기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최근 서울 역삼동 토스뱅크 본사에서 본지와 만난 송 PO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서 하지 않았던 형태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색다른 방향으로 기획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발자, 정책 담당자,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가 포함돼 있다 보니 금융에 대한 전문성보다 각자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금융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면 타성에 젖어안 되는 것을 미리 규정짓고 더 좋은 제품이나 차별성을 내기 어렵는데 비금융권 전문가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색다른 시각은 틀을 깨는 상품으로 이어졌다. '굴비적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출시한 굴비적금은 한 달 만에 30만 계좌를 돌파했다. 송 PO가 진두지휘했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최초로 누구나 이체와 카드 결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한 '모임통

장' 출시를 시작으로 예치 즉시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적금', '자유적금' 등 기존에 없던 상품을 내놔 시장을 흔들었다. 송 PO는 혁신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전통적 의미의 금융 '형식'을 깨기 위해서다. 그는 "토스뱅크는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며 "상품 개발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 만들어간다"고 했다. 실행력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는 타 은행에서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결국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실행력이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글/정성원 기자 jsw@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 스마트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농산업 국내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 1 산업단지 입주 허용
  - 2 농지 위 설치 허용
  - 3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지원 강화
-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 1 센서·구동기·복합환경제어기(2월)
  - 2 주요 기자재 환급 대상 확대 추진

####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 1 전문 교육기관 지정
  -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3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
- 기술기반 유망기업 집중 지원
  - 1 민간투자 유치·경영상적 우수 기업 지원
  - 2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 “반도체만큼 중요한 ‘플랫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 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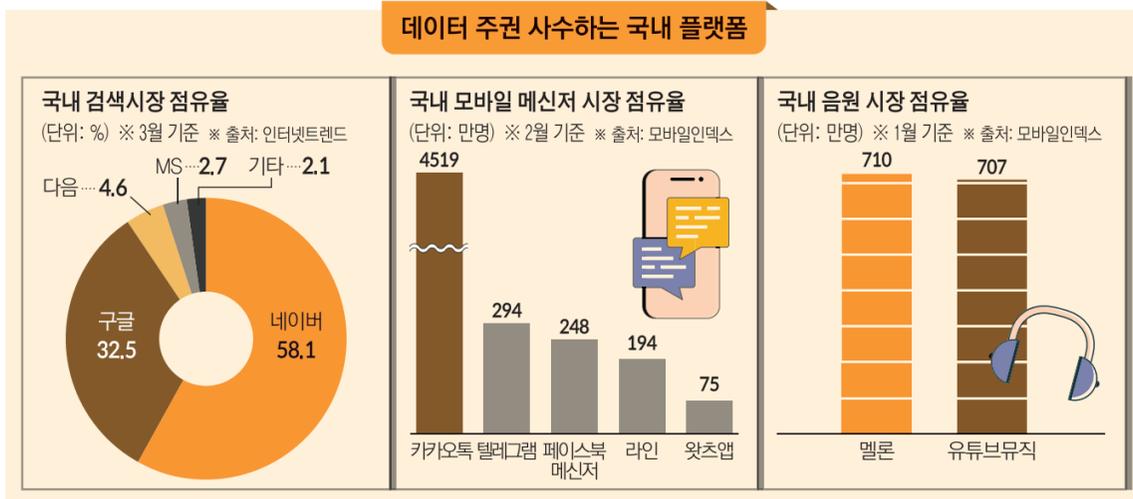
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  
韓 규제·세금·망사용료 역차별

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  
플랫폼법 알리·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지만, 우리 정부도 플랫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 간 경쟁이 되고 있듯 플랫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며 “플랫폼 산업이 넘어가면 경제뿐만 아니라 넘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빅테크가 장악한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세계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도,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도 한국에서는 토종 기업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과 메신저



시장을 사수한 결과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나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을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각종 규제 △세금 △망 사용료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플랫폼 등 자국산업 보호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보호보다도 자국 산업 보호

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플랫폼은 삼성, 현대차, BTS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산업으로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국 플랫폼이 없는 유럽연합(EU)의 규제나 일부 국내 자영업자의 반발, 정치권에서 여론을 의

식해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국 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플랫폼법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안방을 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알리와 테무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플랫폼법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이 한국법을 준수하더라도 저가의 가성비 제품을 팔면 국내 산업이 죽는데 여기에 규제까지 족쇄를 채우면 이중고다. (플랫폼법은) 중국과 경쟁에서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공세 칼 빼든 美·EU... 고민하는 韓

美, 중·러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  
韓 국내법 철저히 집행만 해도 소득  
표시광고·소비자법 등 위반 조사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지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면세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둔 알리와 테무는 모기업의 네트워크와 자본력,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 수 있었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의 허점도 알리, 테무,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초저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데 한몫했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상품 무관세 기준을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 기준이 변경된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형 택배 중 30%는 쉬인과 테무에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가 이어지자 미국에서는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지난해 6월 면세 혜택에서 중국과 러시아발 제품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 판매,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 미흡 등 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신규 규제를 선부르게 도입하기보다는 기존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제재를 가하면 중국에서 또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우리가 중국으로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알리, 테무가 국내법을 잘 적용하도록 하는 집행력이 중요하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표시광고 위반이나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관련 조사를 하고 적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만 따르더라도 규제 준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지금까지처럼 초저가 전략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nari34@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 Action for Positive Change

ESG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B 선정
- 2022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 2023 KIFCA 대한민국 핀테크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성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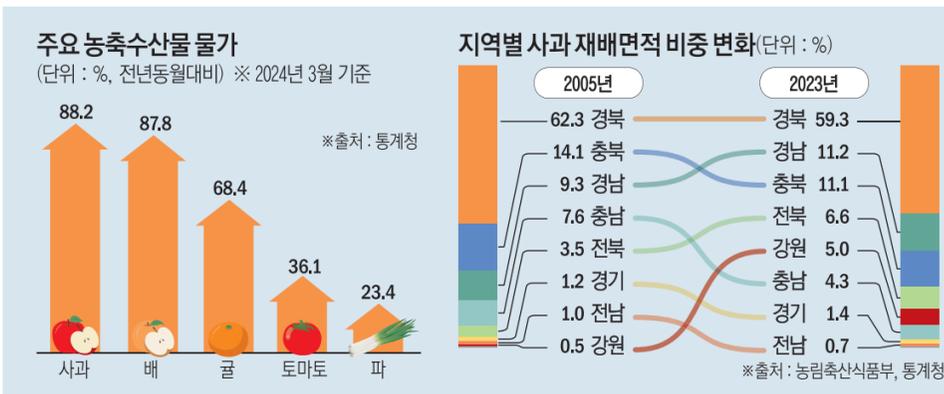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 “사과합니다”... 정부, 물가안정 때까지 ‘물량·할인 총공세’

##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2%대 물가 안착 목표  
농축산물 할인지원 20%→30%”  
상반기 직수입 과일물량 5만톤↑  
농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2030년 사과 재배량 15만톤↑  
과일 생산·유통, 정부 관리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이달부터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해 점차 빠르게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도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과 등 과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기적인 가격 안정 방안을 담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2024~2030년)을

이날 발표했다. 사과의 경우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지난해(3만3789헥타르(ha))와 비슷한 3만3000ha(여의도의 114배)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사과 생산은 평년(49만 톤) 수준인 50만 톤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은 2030년 각각 15만 톤, 6만 톤까지 늘려 공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은 각각 5만 톤, 4만 톤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는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6만 톤으로 확대하고 일부를 지정 출하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일상 소비용 사과 공급을 위해 크기가 작은 사과 1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복상에 따라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산지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선, 양구, 홍천, 영월, 평창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지난해 931ha에서 2030년 2000ha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원도에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하고 ‘강원사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 등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스마트 과수원을 20ha 규모로 단지화해 내년 5곳을 새로 조성하고 2030년 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1~2단계 줄여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정부는 3월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4월부터는 일조증가, 대체 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춘분(3월 22일) 이후 낮 길이가 점점 길어져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참외·수박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한다고 박 정책관은 설명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신보중앙회 ‘대출 리스크’... 곳간 단속 나서나

**적정 자본 규모 검토 돌입**  
소상공인 대위변제를 3%대↑  
중앙회 보유 자본 40% 감소  
우발적 채무·유동성 위기 대비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정 규모의 자본을 파악해 대위변제 급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신보중앙회는 지난해 중순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대출 리스크가 경제 뇌관으로 불릴 만큼 부실이 커지고, 이로 인해 신보중앙회 자본이 급격히 감소하자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리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들이 보증한 금액 일부를 재보증해 각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간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는 2020년 3831억 원에서 2021년 6114억 원, 2022년 737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6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6.8% 가라앉았다. 소상공인 대출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면서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재보증 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이 함께 높아진 탓이다.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 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2.04% 수준을 보이다가 2020년 1.14%로 낮아졌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1.01%, 1.1%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여력이 떨어지면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나 순지급률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발적 채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완충 자본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보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기본재산 보유가 명시돼 있지만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외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측 오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구글 ‘시크릿 모드’ 집단소송에 백기 “부적절한 정보 수집 수집억건 파기”

구글이 시크릿모드 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 꼬리를 내렸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 보상에 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자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삭제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드물어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9개월이 지난 개인정보 기록 수집억건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세무사항은 이날 법원 문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구글은 정보 삭제와 더불어 평상시 시크릿모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또 타 사이트 정보 추적 기능을 끄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해두기로 했다. 이전까지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머물 때도 해당 사이트의 쿠키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일부 이용자는 구글이 시크릿모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50억달러(약 6조7560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시크릿모드는 검색 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비밀리에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구글이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트래

픽 평가나 광고 판매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기술기업에 정직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사적 단계”라며 “구글은 합의에 따라 부적절하게 수집한 정보를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로 삭제하고 교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는 구글의 매출과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광고업계는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타겟광고의 정밀도 향상이나 효과 측정 등에 활용했다. 기술기업의 인터넷 사용자 데이터 활용을 놓고 앞으로 규제나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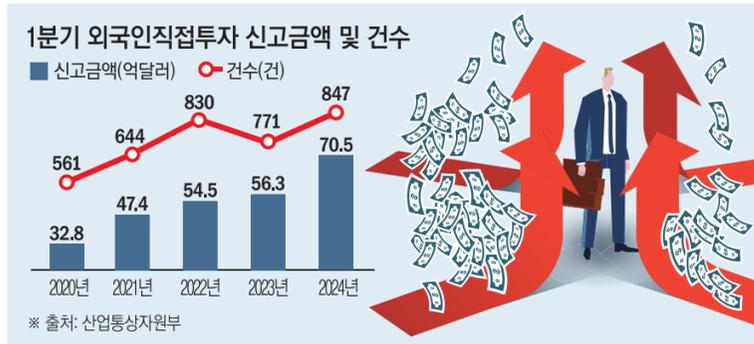
다만 이번 합의안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개인이 구글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50건이 청구된 상태다. 그러나 구글 측이 피해 보상만큼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늘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소송을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해당 정보는 개인과 연관되거나 어떤 형태의 개인화에도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원래 5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개별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5억달러 '역대 최대'



## 제조업 1년새 2배 뿜 30.8억弗 반도체 포함된 전기·전자 견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1분기(1~3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 기준으로 1분기 FDI가 70억 5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1%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역대 1분기 FDI 중 최대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9.2%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38억 5000만 달러로 2.5% 감소했다.

제조업 가운데서는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4억 5000만 달러로 113.5% 늘어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계·장비·의료정밀과 화학 업종도 각각 5억 4000만 달러, 3억 4000만 달러로 각각 49.2%, 69.5%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분야 FDI가 21억 9000만 달러로 34.3% 증가했다.

투자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로

3.4%, 69.8% 감소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 감소가 작년 대형 투자 유입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일본과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에서 유입된 투자는 11억 3000만 달러, 21억 2000만 달러로 각각 281.8%, 1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115.4% 증가한 31억 9000만 달러를, 법인 신설(그린필드) 투자는 7.1% 감소한 3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올해 FDI 목표를 350억 달러로 제시했다.

산업부관계자는 "327억 2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외투 실적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분야의 첨단 투자가 다수 유입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를 체감되는 성장 본궤도에 올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GTX로 지자체 환승손실금 부담 가중... 협의체 필요"

수도권 한달 배분규모만 380억원 교통연구원 "개통 전후 분석 통해 배분 규칙·운임체계 등 고민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를 감안해 정산 및 배분 규칙, 승객 구분 등 GTX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김경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GTX 운임체계의 당면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고 향후 B, C 노선과 2기 GTX 사업이 발표된 만큼 GTX 운임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는 통합환승요금제(버스)와 연락운송체계(철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기존 운송기관의 환승손실금은

지자체와 운송기관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철도(지하철 포함) 간 환승 시에는 맨 처음 탄 곳을 운영하는 기관이 요금을 가져간다.

버스와 철도 간 환승 시에는 철도기관이 거리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 정산사인 티머니에 따르면 한 달 정산 및 배분 규모는 1909만 건,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GTX 운임체계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기반 환경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나 GTX의 등장은 기존 경쟁수단의 운임 수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운송기관과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자체는 이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산 규칙을 수정해 운송기관의 환승손실금이 최소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GTX 운임체계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중교통 정책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GTX 실측수요를 기반으로 GTX가 수도권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GTX 개통 전후를 분석해 대중교통 노선별 수요 차이, GTX의 영향권, 환승 패턴 등 GTX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경쟁노선 혹은 보완노선 관계를 규명하고 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변화를 파악해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GTX 간 운임 차이, 요금체계, 환입제도, 정산 및 배분 규칙, 승객 구분 등 GTX 이용 활성화를 위한 GTX 별도 협의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원·달러환율 연고점 뚫었다 5개월 만에 다시 1350원대

원·달러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5개월 만에 1350원대에 진입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352.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1356원까지 오르며 직전 연고점(3월 28일, 1353원)을 경신했다. 1350원대 종가는 작년 11월 1일(1357.3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356.7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개장 기준 10월 30일 1356.7원(당일 종가 1350.9원) 이후 최고치다. 밤사이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미 달러화 강세가 부각된 영향을 받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지난달 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0.3을 기록하며 17개월 만에 기준선 50을 웃돌았다. 기준선을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1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고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상승 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등에 대한 경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ISM 제조업지수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표인데 기준선 50을 넘어섰다"며 "국제 시장에서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밀리고 있는 데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화 방향이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리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나 예상이 조금 약화된거나, 뒤로 밀리면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2분기 원·달러 환율을 상향 조정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다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및 금리 수정 전망을 반영해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을 1325원으로 기존 전망치 1300원 대비 25원 상향 조정한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부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인 선임필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사후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실적을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요약>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감독하지 않으니, 중소기업중앙회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책임보험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인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 '1호 인재' 텃밭 탈환이나

구자룡 황희  
양천갑

# '도시 전문가' 3선 쐬기나

"싸움만 하는데 투표해봤자... (국회의원) 되는 사람만 좋지, 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잖아."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 속한 목동개비시장 초입 인근 농협앞을 빙자루로 쏘던 김모(60대)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투표할지 말지 몰라"라고 말하곤 돌아섰다.

목동개비시장은 양천갑 민심 바로미터로 통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수장이 일찍이 자당 후보와 함께 출고 간 곳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현역이자 친문(친문재인)계 재선 황희 후보를,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1호 국민인재'로 영입한 변호사 출신 구자룡 후보를 배치했다.

개비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여긴 (시장 상인은) 거의 민주당"이라며 "황희에게 별 관심은 없지만 국민의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구 후보의 지지자도 있었다. 이른 오전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있던 중년 남성은 "2번



(구 후보)을 생각하고 있다. 젊고 똑똑하지 않나. 비전이 있어 보였다"며 "예전에 TV 패널로 나와서 말하는 걸 봤는데 참 스마트하더라. 이런 사람이 와야 앞으로 동네가 더 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 싫고 짜증나니까 그런 건 (정치) 묻지도 말라"며 인상을 찌푸리는 식당 주인도

## 배틀필드 410

14~19대 보수진영 6연승 거뒀지만 20·21대 黃후보에 2번 내리 내줘 아파트 재건축·교통 인프라 현안具 "정부와 협업" 黃 "내 전문분야" 고물가에 빨난 상인들 "당연히 1번" 주민 "젊고 똑똑한 2번" 표심 갈려

있었다. 양천갑은 신정1~2동·6~7동, 목1~5동으로 이뤄졌다. 14~19대 총선까지 보수정당이 6연승을 한 소위 '보수 텃밭'이었지만, 20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2연승을 하면서 기류가 변했다. 양천에서 40여년 거주한 황 후보가 도시공학박사(연세대) 이력으로 지역 재건축적임자임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무려 28년 만에 민주당으로 넘어



간 양천갑을 구 후보가 8년 만에 탈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양천갑은 1980년대 준공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7000여가구를 비롯해 동네 곳곳의 노후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신정차량기지 이전과 같은 교통인프라 문제

등이 최대 현안이다. 이미 두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황 후보는 △목3동 초교 신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영재스쿨 개설 등을, 구 후보는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오목교·파리공원 중심축 교육벨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여기는 공약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두 캠프 관계자의 공통된 전언이다.

3선에 도전하는 황 후보는 공보물에 '도시전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0순위' 등의 문구를 담은 등 구 후보와의 차별화 지점인 현역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장에서 만난 몇몇 상인은 황 후보의 지역 행사·모임 참석률이 높은 점을 칭찬하면서 지역 의원으로서 8년간 하던 일을 계속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구 후보도 양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짜 지역 토박이'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실과 서울시와의 정책 협업을 통한 '재건축' 등으로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구 후보는 '양천의 새로운 힘·힘있는 여당 후보', 황 후보는 '양천만 바라보는 양천 바보'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글·사진 정호영 기자 moonrise@

## 양문석 '편법' 주장에... 법조계 "사기죄 적용될 수도"

### '작업대출' 파장 일파만파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문제의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새마을금고는 몰랐고 양문석 후보가 서류를 꾸며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2일 본지가 법조계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용도 사기'로 파악된다. 편법 대출 논란을 두고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대출을 권유했다고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사실 입증

새마을금고 "관행" 제안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위조서류에 속아 대출해줬다면 梁 후보 '용도사기' 특경법 위반

여부가 쟁점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후보의 주장대로 새마을금고의 제안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된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새마을금고를 들어 다보고 있다.

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이자 등의 수익이 새마을금고의 주된 수익인 점, 양 후보에게 충분한 담보를 받았던 점 등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이 인정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 판례상 수익자를 공범으로 볼 수 없으려면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편법대출을 적극적으로 교사했거나 편법대출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한다"며 "단지 수익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측이 모르게 다른 용도로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상 용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었다면 특경법 제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B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경법 제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걸린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건으로 대법원 판정이 확정되면 한참 뒤의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이번엔 아동·청년기본소득 野, 연일 '돈살포' 선심공약

### "0~24세 월 최대 5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수입소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당연합은 전날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 청소년·사회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 원(0~7세 14조5000억 원·8~24세 30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 직전 민주당 측이 꺼내든 두 현금 공약에 들어갈 재정만 57조5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예컨대 0~7세 아동 2명인 4인 가구라면 1회에 한해 지원금 250만 원을, 이후 매달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도 14조 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바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나서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작업대출 현장조사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당장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조사만 공동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총출동 검사로 불법 대출이 적발될 경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확대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기로 했다"며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금감원에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회는 현장 검사 진행 결과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좌 거래 내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금감원에 지원 요청을 할 예정이고 요청 후 금감원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양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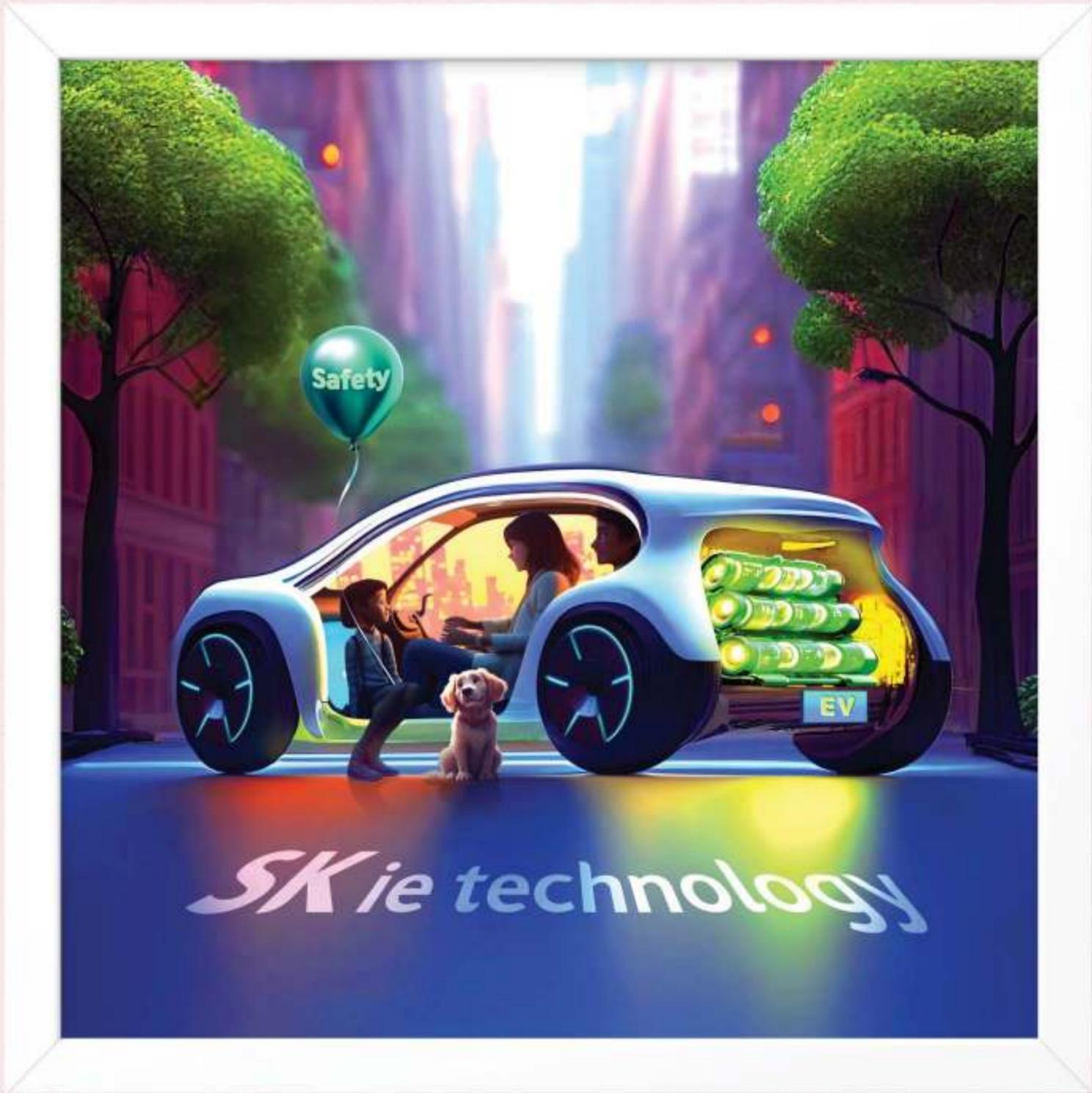
### 중앙회 이어 금감원도 오늘부터 현장검사 전국 1200곳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가능성

사업자가 아닌 차주를 사업자로 위장해 대출받는 작업대출이 '업계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대출을 서류 위조를 통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내주는 일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영 기자 haha@  
손희정 기자 sonhj1220@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함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처**



벚꽃길 투표 독려 2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무거천에서 울산시공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월 10일 꼭 투표'라고 적힌 팻말을 각각 손에 들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만에 또 미사일 北, 총선 앞 무력도발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 1발 발사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고... 최종 70% 넘을까

4·10 총선 재외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62.8%로 집계됐다.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은 만큼 최종 투표율이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7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투표에 선거인(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누적 9만2923명이 투표해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인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국내 선거에 참여한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

9만2923명... 62.8% 기록  
지난 총선은 23.8%에 그쳐

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앞서 종전 최고치였던 19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였으며, 20대 총선은 41.4%,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은 23.8%에 그쳤다.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선거 사무 중지 등으로 인해 재외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외선거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최종 투표율 또한 높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종전 최고치(45.7%)를 기록했던

"통상 55% 넘으면 진보 유리"  
최종 투표율 놓고 여야 촉각

19대 총선의 경우, 최종 투표율이 54.2%를 기록했고, 20대 총선(41.4%)에서는 투표율이 58.0%로 집계됐다. 재외선거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이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7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종 투표율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총선 추이를 보면 투표율이 55%

를 넘으면 민주당에 유리했고, 이를 넘지 못하면 국민의힘 계열에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60.6%였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180석을 차지했을 때 투표율은 66.2%였다. 반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46.1%였고, 4년 뒤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할 때 투표율은 54.2%였다. 투표율이 58.0%를 기록했던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1석 많은 123석을 얻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 尹 "240개 민생과제 신속히 해결 중"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

검회의'를 열었다.

1월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개최한 총 24차례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회 분야 과제가 다



뤄졌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 하겠다는 말은 절대 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도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는 점을 상기 했다.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 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이투데이퍼낸서 **BRAW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 시가 몰고온 '블루칼라' 열풍... 美, Z세대 목수 많아진다

## 대학 교육 회의적 인식도

오랫동안 노동력 부족을 겪은 용접공·배관공·목수 등 숙련기술직이 최근 미국 Z세대(1990년대중반~2000년대초반출생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커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인식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의 부상에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화이트칼라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블루칼라 기술직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립학생정보처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6% 늘어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이 23%, 차량 유지·보수 등 기술을 배우는 학생은

## 직업교육 학생 1년새 16% 늘어

### 2018년 집계 시작 후 최대 증가

### 대학생 대상 고용안정성 설문엔

### 대다수 "화이트칼라보다 낫다"

### 안정적 취업·수입 증가도 한몫

7% 각각 늘었다.

작년 가을 9개월간의 용접 프로그램을 이수한 한 젊은이는 "원래 대학을 갈 계획이었지만 부모님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계속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최근 샌디에이고에 있는 새 병원의 파이프 설치 일을 돕고 있는데 매일 뭔가를 완성해가는 성취감을 느껴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에서 블루칼라 기술자에 대

## 미국 블루칼라 기술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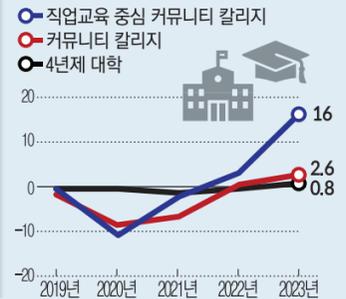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2013년	2023년
목수	116만4000	127만5000
전기기사	73만	95만9000
배관공	55만3000	63만5000
용접공	57만5000	55만9000
난방·에어컨·냉동 등 설치 기술자	38만4000	54만6000

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배경으로는 우선 최근 수십 년 동안 비용이 급증한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분석회사인 버닝 글래스인스티튜트와 비영리단체 스트라다교육재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절반가량이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직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고등학

## 미국 대학 등록생 증가율 (단위: %)

※ 전년 대비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교 졸업생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열풍에 젊은이들의 직업 계산법이 바뀐 것도 작용했다. 소프트웨어 회사 자버가 지난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AI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가 화이트칼라보다 고용안정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또

교육시설과 업무현장에 로봇팔 등 새로운 장비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한 Z세대들의 흥미를 끌었다.

숙련기술직의 안정적인 취업 경로와 꾸준한 수입 증가 전망도 주요 비결이다. 수년간 기존 기술자들의 은퇴로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업계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배관난방냉각도 급업자협회의 마이클 맥그로 전무이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5년 전에는 연간 3만5000달러(약 4700만 원)를 벌었지만, 요즘 수입은 6만 달러(8100만 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만족도도 높다. 주택 수리·관리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홈 서비스 플랫폼 섀터가 지난해 숙련기술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가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와 유사한 직업을 갖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진영 기자 mint@

# 중동 확산 불안 고조... 금값·유가 불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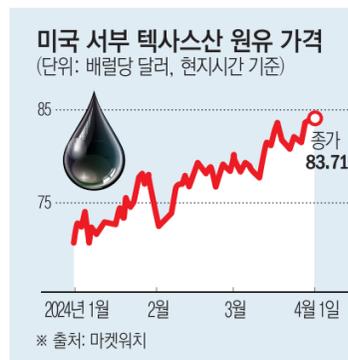
## 이란 영사관 폭격 영향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7명 사망  
이란 외교부 이스라엘 보복 천명  
국제유가, 5개월만에 최고  
뉴욕 금값도 사상 최고치 경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 확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금값이 치솟는 등 글로벌 상품시장도 들쭉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에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붕괴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폭격으로 고위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비롯해 총 7명의 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작년 말부터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IRGC 대원이 잇따라 숨진 바 있지만, 재외공관이 피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직접적



교전을 피하는 태도를 나타냈지만, 이번 영사관 공습 사태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은 이미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침략자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의 방식은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을 지원하며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주도하는 이란이 개입할 경우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는 이미 이란의 보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확실히 이 범죄에 대해 적어 처벌과 응징을 당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동 지역 확산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금값도 요동쳤다.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 건물이 공습을 받은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파보안 요원들이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다마스쿠스/AFP연합뉴스

장보다 0.54달러(0.65%) 상승한 배럴당 83.7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42달러(0.48%) 오른 배럴당 87.42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두 유종 모두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애널리스트들은 "현재까지 시장은 전쟁이 억제된 상태여서 공급 차질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란이 개입할 경우 석유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 금값도 고공 행진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8.7달러(0.84%) 상승한 온스당 2257.1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286.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300달러 선 돌파에 근접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중동,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이 안전자산인 금값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한때 현대차 파트너'... 전기차 스타트업 잇따라 '방전'

카누 '회사 존속 가능성 희박하다'  
어라이벌, 2월 나스닥서 상장 폐지

현대차그룹과 한때 전기차(EV) 공동 개발에 나선던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EV 수요가 둔화하면서 상장 폐지와 파산 위기 등 궁지에 몰렸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020년 현대차와 EV 플랫폼 공동개발에 나선 미국 스타트업 카누(Canoo)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카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지적됐다"라며 "추가 자금을 확보

하지 못하면 잠재적으로 사업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회계기관의 분석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카누의 올해 매출 전망치는 1억5250만 달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하 5000만 달러(약 677억 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2017년 설립된 카누는 'EV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2020년 현대차그룹과 스케이트보드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으나 약 1년 만인 2021년 "독자적인 EV 개발과 생산을 추진한다"며 현대차와 결별했다.

현대차와 상용 EV 파트너십을 맺었던

영국 스타트업 어라이벌은 2월 미국 나스닥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수요자 중심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마이크로 팩토리'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현대차는 2019년 12월 8000만 유로(당시 약 1031억 원), 기아는 2000만 유로를 각각 투자했다. 현대차는 이미 손실 부분이 사업 재무제표에 반영된 만큼 상장 폐지로 인한 추가 손실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상장한 EV 또는 배터리 스타트업 43곳 중 3곳은 파산신청을 했고, 2곳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M&A) 됐다"며 "나머지 18곳도 현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러시아 경제, 서방 '무던 칼날'에 회복세

## 기업 경영환경 지표 12년 내 최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은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올 초 러시아 경제가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투자, 수출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업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하는 기업 경영환경 지표는 지난달 최근 12년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산과 수요 전망치도 201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알렉스 이사코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데이터는 러시아 경제가 복잡한 결재와 물류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출은 반등하고 있고 외환 수입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제재 이후 스타벅스, 샤벨, 폴크스바겐 등 서방 대기업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빈자리를 러시아 기업들이 채우면서 버텨낸 점도 경기회복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독일 DPA통신은 "모스크바 에브로 페이스키 스포츠물에 한때 보였던 공실 대부분이 다시 채워졌다"며 "또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현지 소규모 소매상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발생한 모스크바 테러는 러시아 경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이 테러 이후 이민자 단속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손 부족에 이민자 의존이 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 현대차·기아, 車 어워즈 66번 수상... 글로벌 질주 계속

<2015~2024년>

6개 어워즈서 10년간 최다 수상  
2위 폭스바겐그룹은 33개로 절반  
전기차 전용플랫폼 E-GMP모델  
세계 올해의 차 '3년 연속' 석권

현대차그룹 E-GMP 전기차 '세계 올해의 차' 석권



연속 세계 올해의 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지난 10년 간 월드카 어워즈와 함께 세계 3대 올해의 차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를 포함한 영국·독일·캐나다 등 영향력 있는 6개 올해의 차로 범위를 넓혀도 현대차그룹은 총

274개의 상 중 66개의 상을 받았다. 2위인 폭스바겐그룹은 33개로 그쳤다. 브랜드별 집계에서도 현대차 28개, 기아 27개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3위 마쓰다(19개), 4위 폭스바겐(17개), 5위 혼다(16개)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현대차는 전체 수상 28개 중 절반 이상

을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모델이 차지했으며 기아도 EV9 6개, EV6 4개 등 10개의 수상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최근 3년간 기록을 집계할 경우 성과는 더 도드라진다. 6개 올해의

차 101개 상 중에서 41개를 수상해 자동차 그룹 중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E-GMP 기반 전기차는 약 66%인 27개를 수상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기차 전용공장과 혁신적인 차세대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톱3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2분기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EV3를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아 오토랜드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민재 기자 2mj@

현대자동차·기아의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호평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 EV9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를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선보인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의 모델로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 5, 2023년 현대차 아이오닉 6, 2024년 기아 EV9 등 3년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APR)이 국내에 이어 해외 시장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한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에이피알은 지난해 해외에서 205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해외 자회사와 자사몰, 총판·기타 매출을 모두 더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5238억 원)의 39.2%에 해당한다. 전년과 비교하면 42.8% 성장했다. 이로서 에이피알은 4개 분기 연속 해외 매출 성장,

## K뷰티 에이피알, 해외서도 최대 실적 뽐냈다

지난해 2052억 매출 43% 성장  
미국 시장만 679억 127% 경증  
'부스트힐러' 등 미용기기 인기

해외 매출액 20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연간 해외 매출 경신을 동시 달성했다. 국내를 제외하면 단일 국가에서 최대

실적을 거둔 미국 시장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에이피알은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679억 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127.3% 성장했다. '부스터힐러'를 중심으로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가 지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은 역대 최대 월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K뷰티와 뷰티 디바이스를 향한 관심과 인기가 크게 오른 홍콩에서는 전체 16%의 매출이 발생했다.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한 중국 본토와 홍콩을 더하면 34%의 매출을 기록해 1위 미국(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도 전체 매출 중 16%를 차지했으며 기타 국가 매출 비중 역시 17%에 달했다.

해외 실적의 증가와 함께 에이피알의 전략 역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3월 현재 에이피알의 글로벌 자사몰 회원수는 190만 명을 돌파했다. 에이피알은 설립 이래 꾸준히 자사몰에 차별화된 혜택을 우선 제공하는 자사몰 중심 정책을 고수해왔다. 해외에서도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해왔다. 향후 에이피알은 기존에 강세를 보인 자사몰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jy42@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인협회

## 韓 스타트업, 한일경제단체 손잡고 日 진출

한경협·경단련, 스타트업포럼 개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손잡고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 한경협과 경단련이 함께 설립한 한일미래파트너십 재단은 2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단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건전한 경쟁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 주된 역할은 진취적 기풍이 넘치는 스타트업이 할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한일 산업 협력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번 포럼은 양국 대기업이 스타트업 협력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한국 스타트업과 기술 개발 역량, 사업

노하우와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일본 대기업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올해 초부터 공개 모집과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공지능(AI), 스마트물류, 제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10곳 △알리온 △콜로세움코퍼레이션 △크리에이트립 △에바 △인이지 △로앤컴퍼니 △나비프라 △팜캐드 △루텐테크놀로지스 △지크립토 등을 선별했다. 포럼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단련 스타트업위원회 소속 일본 대기업의 신사업 및 한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본 진출을 통한 협력 방안과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포럼에 이어 3일 설명회를 마친 국내 스타트업과 일본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 일대일 방문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viaje@lune@

## 포스코 장인화 체제, 의사결정 빨라진다

지주사 첫 조직개편·인사  
조직 슬림화로 '실행력' 높이고  
여성 임원 3명 경영 전면 발탁  
포항·광양제철소장 본부장급 격상

포스코홀딩스가 장인화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그룹 경영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해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주사 내 철강팀·수소사업팀과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업무의 주요 기능을 지주사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신설되는 '탄소중립팀'이 통합 관리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차전지소재사업 전략기획 및 사업추진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기능을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이관해 '이차전지소재사업관리담당'을 신설했다. 그룹차원의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기술총괄'을 신설



이유경 경영지원팀장 김희 탄소중립전략담당 한미향 홍보담당

하고 포스코 기술투자자의 신사업 기획, 벤처 기능도 이관해 지주사 주도의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강화한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팀과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했으며,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 사무국'도 신설한다. 이번 포스코홀딩스 정기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성 임원들이 약진했다. 포스코홀딩스 경영지원팀장으로는 포스코그룹 역사상 첫 여성 사업회사 대표인 이유경 엔투비 사장이 보임했다. 또한, 탄소중립팀 탄소중립전략담당은 포스코 여성 공채1기로,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장, 생산기술기획그룹 등을 역임한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 전략실장이 맡는다. 커뮤니케이션팀 홍보담당은 포스코·포스코퓨처엠 흥

보그룹장 및 포스코홀딩스 언론담당 상무보를 역임한 한미향 포스코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선임됐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차원의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컨설턴트 출신인 이영화 상무보를 브랜드전략부장으로 영입했다. 그룹사에서는 안미선 포스코이앤씨 구매기획 그룹장이 구매계약실장을 맡게 됐다.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철학을 반영해 제철소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기술본부 부지하고,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을 본부장급으로 격상시켜 제철소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통해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의 신 경영 비전을 사업성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해외 갈 때 아직도 현금 환전해?”



환전 수수료 없고

현금 들고다니기 불안한데

왜안 SOL?

써보면 왜 쓰는지 아는

SOL 트래블 체크카드

[유의사항]

- 이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사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부탁 드립니다. - 전월실적 및 혜택 상세기준 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 혜택 1. 환전 100% 우대, 재환전 50% 우대 2. 국내 편의점 5% 및 후불교통 1% 할인, 국별 특별 가맹점 5% 할인(일본, 베트남, 미국) 3. 외화계좌 특별금리(연 USD 2.0%, 유로 1.5%)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1050-1호(2024.03.12~2025.03.11) \*신한카드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312-Dpr-001호(2024.03.12~2025.03.11)

# “AI·XR 신시장 확대”… 삼성, 반도체 설계역량 힘준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에 승부수를 던졌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와 파운드리(칩 위탁생산) 뿐만 아니라 설계 역량까지 갖춰야 완벽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반도체 승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자율 주행, 확장현실(XR) 기기, AI, 로봇 등 신시장을 겨냥해 제품 개발 및 라인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주주 총회에서 경제현 삼성전자 사장이 처음 공개한 AI 반도체

## 종합 반도체 기업 발돋움

AI 반도체 ‘마하-1’ 공개 이어 후속 ‘마하-2’ 개발 의지 밝혀 XR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비전’ 라인업 다각화 새 먹거리 확보

‘마하-1’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마하-1’을 내년 초 출시하고, 네이버에 처음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15만~20만 개로 개당 50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하-1은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간 병목(지연) 현상은 8분의 1로 줄이고 파워 효율은 8배로 늘리는 것을 목



표로 현재 개발 중이다. AI 가속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신 저전력(LP) D램을 활용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기존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경 사장은 주주 총회 후 곧바로 미

국 출장길에 나서 고객사들을 만난 후 ‘마하-2’ 개발 의지까지 내비쳤다. 경 사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하-1’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하-2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준비를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마하-1의 출시 전부터 차세대 제품 마하-2의 개발 의지까지 보이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네이버의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MS,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공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XR과 로봇 분야에서도 이미 이미지센서인 아이소셀 제품을 공개하며 시

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공개한 차세대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비전(ISOCELL Vizion)’ 2종은 로봇, XR 등 신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다.

아이소셀 비전 63D는 빛의 파장을 감지해 사물의 3차원 입체 정보를 측정하고 지도를 그리는 간접 비행시간측정센서(iToF)다. 서빙·물류 로봇, XR 기기, 안면인증 등이 주요 응용처다.

아이소셀 비전 931은 사람의 눈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글로벌 서터 센서다. XR, 모션 트래킹 게임, 로봇, 드론 등 움직이는 피사체를 왜곡 없이 촬영하는 데 최적화됐다. 삼성전자는 이들 두 제품의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비전의 차세대 라인업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 삼성 피트니스 밴드 Galaxy Fit3 오늘 국내 출시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 45% 확대 1회 완충시 최대 13일까지 사용

삼성전자가 3일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 핏3는 전작 대비 약 45% 커진 40mm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알루미늄 바디로 내구성을 강화했고, 기기 본체 무게는 18.5g으로 더 가벼워졌다.

또 사용자가 야외에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IP68 등급의 방수·방진도

지원한다. 특히 방수의 경우 5기압(ATM)까지 보호된다.

배터리는 1회 완충으로 최대 1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급속 충전을 지원해 30분 충전 시 최대 65%까지 충전된다.

갤럭시 핏3는 유산소·웨이트·구기종목 등 100가지 종류 이상의 운동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수면·스트레스 등 기본적인 건강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한다.

‘낙상 감지’와 ‘긴급 SOS’ 기능도 시리즈 최초로 지원한다. 연결된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리모컨 기능도 제공한다. 박민우 기자 pmw7001@

## 전동화 올라탄 현대트랜시스… 5년새 매출 53%↑

2019년 7.7兆서 지난해 11.7兆 파워트레인·시트사업 성장 견인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출범 후 5년 만에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해 매출 1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출범 당시 7조 7000억 원에서 53% 성장한 수치다. 하이브리드 변속기와 전기차용 시트 사업의 확대가 연평균 9%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트랜시스의 주요 사업인 파워트레인과 시트 부문은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파워트레인 부문은 지난해 2022년 대비 9.6% 늘어난 7조 3315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시트 부문에서는 2022년 대비 22.4% 급증한 4조 3624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트랜시스는 하이브리드 변속기 전자제어장치, 전기차용 시트 등 전동화 핵심 부품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트랜시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변속기, 수동변속기, 듀얼클러치변속기, 무단변속기, 하이브리드 변속기, 전자제어장치 등 변속기 전 라인업 생산 능력을 갖췄다.

특히 연간 100만 대의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차 생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랜저, K5, K8, 쏘렌토,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아반떼, 니로 등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 차종에 구동 시스템을 공급한다.

전기차의 변속기 역할을 하는 감속기의 생산 능력도 2020년 대비 약 4배 늘렸다. 현대트랜시스 생산한 감속기는 현재 레

이, 쏘울, 아이오닉5·6·N, EV6·9, 니로, 코나, GV60·70(EV) 등에 탑재된다.

전동화 시장에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구동축을 분리, 연결해 이륜과 사륜구동 방식으로 자유롭게 전환하는 전기차용 ‘디스커넥트 액추에이터 시스템’(DAS)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시트 사업에서도 전동화 체질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가 개발한 ‘저전력 카본 열선’은 금속 코팅 카본 섬유를 이용한 시트 열선 시스템 기술로 전기차 시트에 특화됐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지난 5년간 전동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동 경험의 혁신을 제공하는 시트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하이클래스 끝판왕… 기아 ‘The 2024 K9’

디자인 고급화·신규 편의사양 플래그십 이미지 살려 차별화

기아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K9’(사진)을 2일 출시했다.

신형 K9은 내·외장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K9의 외장에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새롭게 적용하고 신규 내·외장 색상을 도입해 플래그십 이미지를 더욱 높였다.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 ‘페블 그레이’를

포함해 총 5종으로 운영된다. 내장 색상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으로 운영된다.

기아는 기본 트림부터 △에프터블로우 △CT입 USB 단자(전/후석 콘솔 내부) 등 고객 선호 사양 및 안전 사양을 신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동승석 에르고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운영하는 등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동승자 편의성을 확보했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4 K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양 신규 적용과 내·외장 색상 추가로 더욱 향상된 상품성을 갖췄다”며 “한층 고급스러워진 상품성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2공장, 배터리셀 공급 시작

GM 3세대 전기차에 탑재 예정 50GWh까지 생산 능력 확대키로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 제2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의 얼티엄셀즈 제2공장이 건설 시작 2년 반 만에 첫 번째 배터리 셀을 만들어 고객사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캐딜락 리릭(Cadillac Lyriq)’ 등 GM 3세대 신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된다.

얼티엄셀즈 제2공장은 단계적으로 가동 라인을 늘려 총 50기가와트시(GWh)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50GWh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얼티엄셀즈 제2공장은 자동화·정보화·지능화 등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시



얼티엄셀즈 직원들이 제2공장에서 첫 번째로 생산된 배터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스템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화된 제조 공정과 설비를 도입해 생산 속도를 대폭 높였고, 생산 단계마다 최첨단 품질 검사, 제품 오류 검증 방법 등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얼티엄셀즈는 202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1공장 가동을 시작해 가동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수출

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미시간주 제3공장 역시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김영덕 얼티엄셀즈 제2공장 법인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제2공장은 북미 전기차 시장의 핵심 기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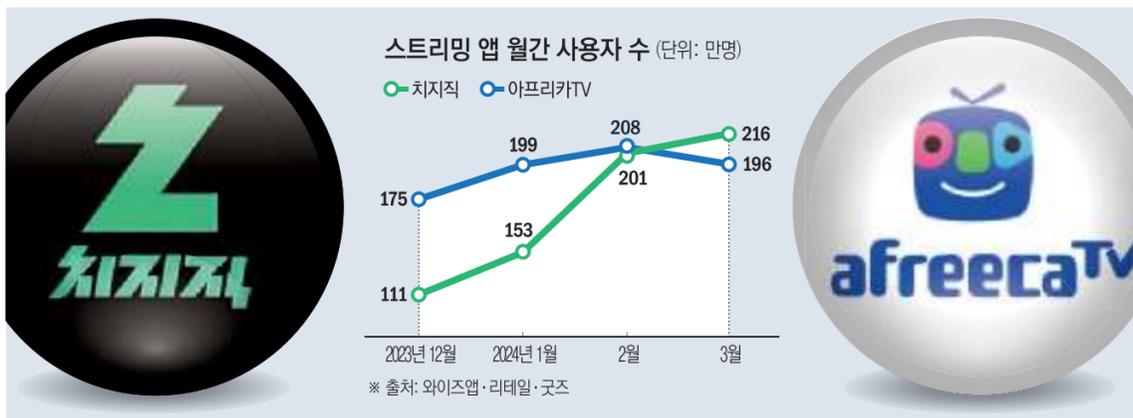
# 불꽃처럼 재빠르게 ‘치지직’… 벌써 아프리카TV 넘어섰네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출시 3개월 만에 개인방송 앱 1위  
침착맨·한동숙 영입에 이용자 유입  
풀HD급 화질 끊임없는 송출 호평  
이달 정식 오픈… 플랫폼 왕좌 노려

네이버의 치지직이 아프리카TV의 월간 사용자 추이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지 한 달만이다. 침착맨, 한동숙 등 거대 스트리머들이 치지직으로 넘어오면서 이들 팬의 유입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치지직은 이달 말 정식 출시 예정으로, 스트리밍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플랫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안드로이드+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치지직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가 216만 명을 기록하며 아프리카TV 앱 사용자 196만 명을 넘어섰다. 치지직은 매월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1만 명, 1



월 153만 명, 2월 201만 명, 3월 216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단 3개월 만에 아프리카TV를 제치고 개인방송 앱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네이버는 규모감 있는 스트리머 유입과 빠른 이용자 피드백이 이같은 성장에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베타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이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서 서비스 완성도를 빠르게 높여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2월 19일에 오픈베타를 서비스하면서 규모감 있는 스트리머의 유입도 많아졌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면 시청자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착맨’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이말년은 치지직으로 넘어온 대표적인 스트리머다. 또한 치지직은 팔로워 26만명의 한동숙, 19만6000명의 랄로, 18만명의 풍월량, 17만9000명의 괴물쥬 등 거대 스트리머들을 파트너 스트리

머로 영입했다. 고품질 서비스도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치지직은 트위치의 720p 해상도를 뛰어넘는 1080p 풀HD급 화질을 제공하고 있다. 고화질 화면에 끊임없는 방송 송출이 단기간에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켰을 거란 분석이다.

다만 사용시간은 아프리카TV가 치지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아프리카TV 앱이 7억1000만 분으로 치지직 앱(3억6000만 분)보다 높았다. 1인당

사용시간도 아프리카TV 앱이 6시간 2분으로 치지직 앱 2시간 49분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치지직이 이달 말 정식 출시되면 이용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치지직은 네이버 멤버십 구독에 포함되고, 네이버 플랫폼과 연계해 광고 효과도 강화하는 등 네이버 생태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 역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이번주 치지직 라운지에 정식 서비스 출시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치지직 서비스 정식 오픈 시점까지 영상 후원, 채널 구독 등 기능을 추가하고, 트위치 구독 승계 프로그램 등으로 이용자 피드백 적극 수렴하며 더 많은 스트리머들이 치지직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검색, 게임판, 카페, 클럽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선보이며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한국 시장 상륙한 크립토닷컴… “최종 목표는 원화마켓”

“최종 목표는 원화거래소 전환이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대표가 2일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한국 시장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크립토닷컴이) 글로벌 거래소긴 하지만 국내 규제를 잘 준수해 (코인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대표 및 최고 운영관리자(COO)와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대표가 직접 참석해 크립토닷컴 코리아 국내 앱 출시와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에릭 안지아니 대표는 “크립토닷컴은 2016년에 설립된 규제 사업을 7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 지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지아니 대표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 첫 韓 맞춤형 앱 출시 국내 규제 지키며 신뢰 쌓기 집중 코인마켓 시작… 합리적 가격 제공 원활한 원화거래 위해 철저히 준비

면 크립토닷컴은 전 세계 8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플랫폼을 통해 1조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안지아니 대표는 이번 앱 출시를 포함한 한국 시장 진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가상자산과 웹3.0 업계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600만 명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있고, 이들은 기술적으로 성숙해 있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인다”면서 “한국은 가상자산 업계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시장”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대표 겸 COO는 2일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가상자산 업계 트렌드 세터”라면서 한국 진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제공 크립토닷컴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강국인 만큼, 콘텐츠가 중요한 웹3.0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립토닷컴은 2년 반 동안 한국 진출을 준비했다. 2022년 8월 가상자산사

업자(VA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던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인 오케이비트를 인수하고, 이미 대주주 변경 신고 등을 마친 상태다. 크립토닷컴은 거래소 브랜드를 오케이비트에서 크립토닷컴 코리아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지난달 27일 오케이비트의 서비스 종료 공지를 하고, 이용자 관련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

패트릭 윤 대표는 한국 진출의 최종 목표를 원화마켓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도 찾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당국이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맞춰서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희망은 (당국, 은행 등과) 잘 협의해서 곧 원화거래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마켓으로 당장 거래량을 늘리기 힘들 수 있지만, 단기적 실적보다는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명성을 쌓는 것이 목표”라면서 “(크립토닷컴 코리아의) 경쟁력은 감치 프리미엄이 있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이용자에 글로벌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 미래엔, 매출 올랐지만 수익은 뚝… 반쪽짜리 수성

작년 매출 10.4% ↑ 영업익 45% ↓  
경상개발비 등 판관비 지출 확대 영향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인 미래엔이 지난해 외형 성장을 이어가면서 명성을 지켰다. 하지만 수익성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하면서 반쪽짜리 수성에 그쳤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엔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이 2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96억 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래엔은 이후 매출이 1900억 원대를 유지했다.

미래엔의 매출 신장은 2023-2025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입찰 결과 초등국어(특수포함) 과목 발행권자로 선정되는

등 위상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디지털 교과서로의 전면전환 및 교육의 디지털화에 대비해 디지털 학습에 최적화된 신규 모바일 학습 서비스 ‘디지털초코’를 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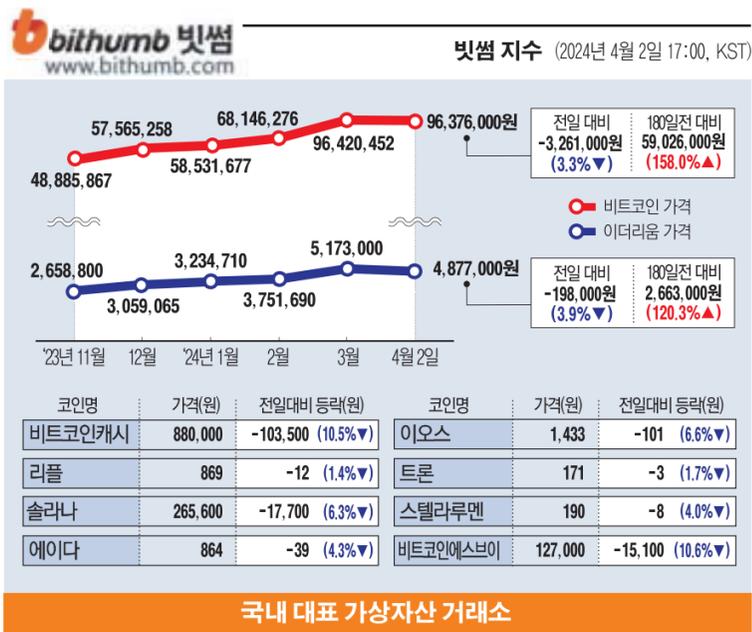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작년 영업이익은 176억 원으로 전년보다 44.6% 급감했다.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규모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개발비가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미래엔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물가,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원가 상승

부담에서는 비켜나 있었다. 작년 매출이 10% 늘는 동안 매출 원가는 47.1%를 기록해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판관비가 733억 원에서 980억 원으로 33.8% 늘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러한 판관비 증가 요인으로는 경상개발비 급증 영향이 컸는데 47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528.8% 폭증했다. 여기에 제조경비에 포함된 개발비를 더한 회사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은 383억 원에 이르며 회사 매출 대비 17.5%를 차지한다. 전년에는 74억 원, 3.8%에 불과했으며 2021년에도 138억 원, 7.0%로 작년의 3분의 1가량에 그쳤다.

조남호 기자 spdran@



# 병원 떠난 전공의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 전공의·의대생 설문

64% “감축”... 4% “증원 찬성”  
尹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날 것”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 ‘문제’  
의대교수협 증원 취소소 각하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의 의과대학정원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보다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직 전공의 류욱하다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공의 1만 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 중 158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64.1%가 찬성했고,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31.9%가 동의했다. 총 96.0%의 젊은 의

사가 의대 정원 감축 또는 유지라고 답했다. 증원에 찬성한 답변은 4%였다.

응답자 중 531명(33.6%)이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했다. 수련의 향이 없는 이유로 △정부와 여론의 의사

‘악마화’에 환멸을 느껴서(87.4%)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필수로 패키지를 추진해서(76.9%) △심신이 지쳐서(41.1%) 등이었다.

반면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6.4%(1050명)였다.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로 패키지 백지화’(93.0%, 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 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장·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을 꼽았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가입환자를 병원의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류욱하다 씨는 전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

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슬프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의 환자 대상 프로젝트 이날 공개했다. 류욱하다 씨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사직 전공의·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이번 주 중으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를 시작한다”고 했다. 적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들의 정보를 취합한 뒤 해당 환자를 진단한 교수와 연락해 진료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프로젝트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신고센터 열었더니 ‘고기 굽는 사진’ 올려... 선 넘은 전공의들

대화 조건으로 모든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  
정부 “미복귀 땀 면허정지 행정처분 집행”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스스로 퇴로를 끊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고기 굽는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모든 의료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개설된 신고용 휴대전화에는 최근

고기를 굽고 있는 사진이 접수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보낸 것으로 ‘잘 쉬고 있다’는 조롱의 의미다. 이 휴대전화는 복귀를 희망하지만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이 우려돼 망설이는 전공의들을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한 정부측 관계자는 “신고 실적 자체도 저조한 편인데, 정부측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화를 제안한 정부에 전공의들은 모든 의료정책 백지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2697명이(상반기)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으나, (임용등록을 한 인원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은 규정상 하반기(9월)부터 수련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5월에 복귀한다면 내년 4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돼도 3월에 레지던트로 갈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3월 말까지 복귀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하되,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

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소명·복귀로 면허정지 기간을 경감받을 기회를 주겠다 취지다. 단,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전 통제관은 “가능하면 처분 전 복귀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다르게 처분해야 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조기에 복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 초순수 생산
- 토털 수처리 솔루션
-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원엔바이오주 ES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 사명·대표 바꾼 콜마·코스맥스... “해외시장 더 키운다”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방식) 양대 산맥인 콜마홀딩스와 코스맥스가 올해를 글로벌 시장 공략의 원년으로 삼고 환골탈태한다. 양사는 최근 사명을 바꾸는 한편 대표이사까지 변경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지난해 K뷰티 열풍으로 매출 신기록을 쓴 역사를 올해도 잇겠다는 각오다.

2일 콜마그룹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콜마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콜마

한국콜마홀딩스 → 콜마홀딩스 북미·유럽·아시아 등 신시장서 화장·의약품·건기식 사업 확장

홀딩스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콜마를 이끈다는 사업 확장의 의미를 담았다. 콜마홀딩스는 북미 시장에 해외 거점을 추가 구축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신시장에서도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확장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

미래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 성장동력을 추가 발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2022년 콜마의 원조 기업인 미국 콜마로부터 ‘콜마(KOLMAR)’의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함으로써 콜마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해마다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콜마라는 통합 브랜드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코스맥스그룹은 한국과 중국법인 대표이사의 직책을 상호 교체함으로써 국내외 사업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韓·中 대표 교체해 중국 사업 한 단계 도약 기대 두자릿수 매출성장 실현 목표

대표에는 최경 전 코스맥스차이나 대표(부회장)를, 코스맥스차이나 대표에는 심상배 전 코스맥스 대표(부회장)를 각각 선임했다. 두 부회장의 성공 경험을 한국과 중국 법인에 교차 이식해, 올해 두자릿수 매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 대표에 선임된 최 부회장은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1등 공신이다. 진출 초기였던 2006년 매출은 1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매출 6310억 원(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경종 뛰었다. 최 부회장은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시장에서 고객사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맥스차이나 대표에 선임된 심 부회장은 1980년 옛 태평양에 입사, 아모레퍼시픽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화장품산업 전문가다. 지난해 인디 화장품 브랜드 성장세에 적극 대응, 국내법인 매출 1조 원 돌파 새 역사를 썼다. K뷰티 부흥기를 이끈 노하우를 OBM(제조업자 브랜드개발) 사업에도 접목, 중국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코스맥스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올해 글로벌 시장 전망은 장밋빛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의 핵심 계열사인 한국콜마의 1분기 매출액은 5684억 원, 영업이익은 39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 22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16% 늘어난 423억 원, 북미 매출은 11% 늘어난 20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맥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5033억 원, 영업이익은 185% 늘어난 394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늘어난 1488억 원, 미국 매출액은 49% 늘어난 40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샘표, 중식소스 브랜드 론칭 ‘차오차이’, 5년 개발 끝냈다

렌지업 8종·요리소스 11종 올해 매출 300억 달성 목표



샘표가 새롭게 선보인 중화미식 간편식 ‘차오차이’.

종합식품기업 샘표가 중식소스 신규 브랜드 ‘차오차이’를 론칭, 가정간편식(HMR) 시장 공략에 나섰다. 프리미엄 카레 ‘티아시아’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은 샘표는 차오차이도 품질과 간편함을 앞세워 연 매출 1000억 원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샘표는 2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 샘표본사에서 신규 브랜드 차오차이 신제품 19종을 선보였다. 차오차이는 ‘세계를 돌고 돌아 찾은 새로운 중화미식’을 콘셉트로, 크게 △짜장 △마파두부 △튀김·상추 △특화메뉴 소스 카테고리 출시한다. 조리방식으로 구분하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바로 먹는 렌지업 8종과 요리소스 11종이다. 차오차이는 뉴욕 차이나타운, 상하이, 파리, 홍콩 등에서 선보이는 ‘현대식 중식’ 소스를 표방했다. 광고 모델은 배우 김혜수를 발탁했다.

차오차이의 장점은 ‘간편함’이다. 렌지업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완성할 수 있고, 요리소스도 일상의 재료를 활용해 5~8분 내 만들 수 있다. 간편하지만 고품질을 위해 여경옥·이태규·최형진 중식 셰프와 협업해 5년간 개발했다. 요리소스의 경우, 제품 뒷면에 레시피 영상이 담긴 QR 코드가 삽입돼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

샘표는 2021년 프리미엄 카레 간

편식 티아시아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관련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요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식의 내식화’를 추진 중이다. 티아시아는 정통 커리를 한국인 입맛에 맞게 구현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

다만 소스 간편식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걸림돌도 많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말 선보인 ‘백설 덮밥소스’, 오뚜기가 같은 해 9월 출시한 ‘오즈키친 세계카레’가 대표적이다. 두 브랜드 모두 프리미엄 세계음식을 표방해 집밥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샘표가 선보인 차오차이의 경우 ‘동파육’, ‘몽골리안 비프’ 등 시중에서 접하기 힘든 메뉴의 소스를 제품화한 것은 차별화 포인트다. 서동순 샘표 마케팅 총괄(전무)은 “차오차이는 여경옥·이태규 등 많은 중식 셰프들과 협업해 5년에 걸쳐 개발한 브랜드”라며 “올해 3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연간 1000억 원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j42@

## 동원그룹, 자체 AI ‘동원GPT’ 도입

“연 15만 시간 절감... 업무 혁신”

동원그룹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 업무 혁신에 나섰다. 2일 밝혔다. 동원GPT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GPT 4.0을 기반으로 하는 AI 플랫폼이다. 동원그룹은 각 사업별 업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임직원 맞춤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동원GPT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ERP(전사적자원관리), MES(생산관리시스템) 등 그룹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해 ‘데

이터 중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동원그룹은 동원GPT 도입에 앞서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남정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도 참여했고, GPT 활용법부터 협업 적용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박종성 동원산업 DT본부장은 “올 상반기까지 전 사무직원의 약 25% 이상이 실습 과정을 이수, 연간 약 15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woongjin  
웅진스마트올

1등 스마트올로 우리학교 교과맞춤

내가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개념 과학  
작성이 거리는 방향과 나침반 만들기

수학  
법칙을 이용하여 원의 둘레 구하기

국어  
새 부리의 재요?

웅진스마트올 smartAll

〈Melting pot·용광로에서 모두 녹아 하나가 되듯이 동화된 사회〉

# 선진국은 '멜팅팟 이사회'... 다양성 충족 안되면 징계·벌금

## K-사외이사 보고서 ② 외국 기업은 무엇이 다르나

#지난해 해미 사태를 겪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3월 이사회 복귀를 알리며 새로운 여성 이사를 소개했다. 수 데스몬드 헬만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전 CEO와 니콜 셀리그먼 소니 전 사장, 피지 시모 인스타카트 CEO 등 3명이다. 미국 사회가 백인 남성 위주인 오픈AI 이사회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외신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회사가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픈AI에 다양성 문제를 지적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여성이나 소수인종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 전반의 지탄을 받거나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전문성이나 독립성 또한 민감한 문제로, 다양한 직업군의 경영진을 영입하는데 집중한다. 여전히 중·장년 남성 위주의 전·현직 관료나 교수를 선임하는 국내 상황과는 크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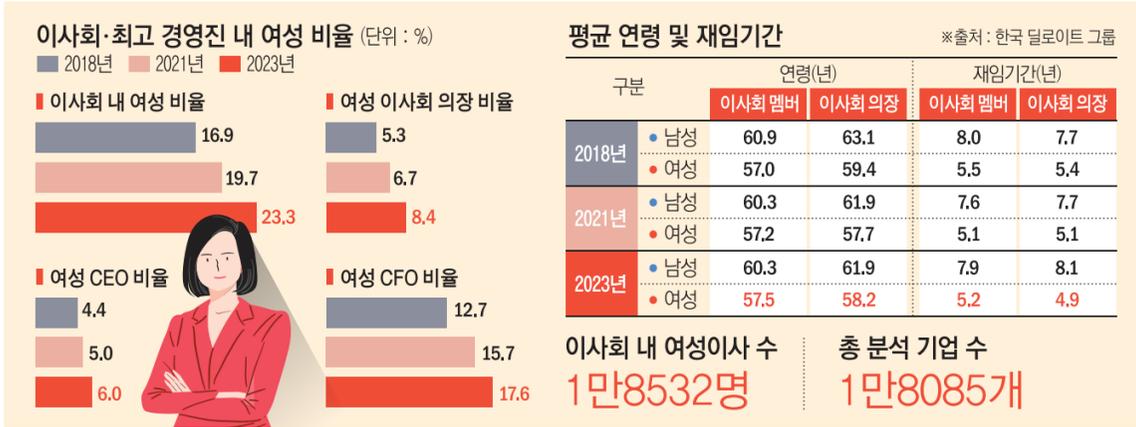
◇나스닥 상장사, 소수인종 = 미국 나스닥은 2020년 상장사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과 소수인종 또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지는 제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안했다. SEC는 이를 2021년 승인해 상장사들은 2026년까지 지침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나스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주에 본사를 둔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일정 비중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미국의 사외이사는 전문성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관료 출신이나 교수 중심인 국내 현황과 달리 다양한 기업 경영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중요해 기업을 견제할 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해졌다. 오픈AI의 이번 새 여성 이사들이 경영진 위주인 것도 이 영향이다. 실제 경쟁사 경영인 출신을 영입하는 사례도 많다.

유럽 국가의 이사회는 성별 다양성에 집중한 분위기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의 상장사는 비상임 이사의 40%, 전체 이사회 33%를 여성으로 구성해



경영진에 다양한 직업군 영입 집중 나스닥, 여성·소수인종 포함 제한 2026년까지 지키지 않으면 퇴출 獨·伊 등 유럽 '여성할당제' 도입

기업의 성장·혁신 주도 인식 확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밀거름

야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노르웨이는 2003년 세계 최초로 공기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민간 기업으로 확대 중이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 해산도 가능하다.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했다.

◇'다양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밀거름 = 주요 연기금들과 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곳들은 '이사회 다양성'을 투자 조건으로 내건다. 이는 다양성이 비단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는 인식 또한 퍼져가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여성이사 확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위험을 낮추고 이사회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의 조사를 보면, 주요 역량 19개 항목 중 감사, 전략적 계획 등 11개에서 여성 이사가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됐다.

능력 있는 이사회와 다양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의 주식투자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상장사의) 나쁜 거버넌스(지배구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 의도대로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관리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회사 곳곳과 비핵심 자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주 의사에 반하는 의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다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김소영(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분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김소영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회계·배당부분 간담회 밸류업 표창 기업 가점 우대 혜택 거래소 벌금 유예 등 인센티브 추가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연결성을 고려해 주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 ① 5중 세정지원\*
- ②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 ③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 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 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유예
- ⑦ 거래소 공동 R 우선참여 기회 제공
- ⑧ "코리아 밸류업 자수" 편입 우대

\*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② R&D 공제 사전심사, ③ 법인세 감면 컨설팅, ④ 부가·법인세 경정 청구심사관련, ⑤ 가업승계 컨설팅

기적 지정 면제 심사에서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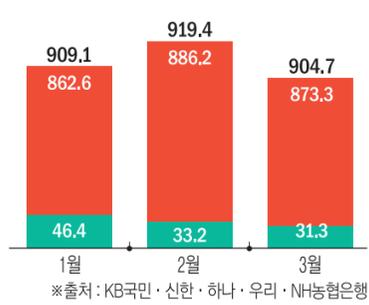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중 신규인센티브까지 더해 총 8종에 이르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si2020@

## 코인·주식 오르니... 짐씨는 '예테크족' 지난달 예·적금서 빠져나간 돈만 '15조'

5대 은행 1분기 4조원 가량 감소 예금리 하락·청년희망적금 만기 탓 요구불예금·투자자예탁금은 급증

5대 은행 예·적금 잔액 (단위: 조원) 정기예금 정기적금



지난 달 5대 은행의 정기에·적금이 15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자산이 오르면서 자금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3개월 기준으로는 4조 원 가량이 예·적금에서 빠져나갔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 기준 904조7488억 원으로 전월 919조4705억 원에서 14조271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잔액은 3월 31조3727억 원으로 2월(33조2204억 원)보다 1조8477억 원 줄었고 같은 기간 정기예금은 886조2501억 원에서 873조3761억 원으로 12조8740억 원이나 급감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월 예·적금 금액이 반짝 증가하면서 1월(909조1061억 원)보다 4조3573억 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잔액은 31조3727억 원으로 3개월 새 15조1149억 원 감소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기준 873조3761억 원으로 1월(862조6185억 원)보다 10조7576억 원 늘었지만, 전월(886조2501억 원)보다는 12조8740억 원 감소해 한 달 사이 급격하게 자금이 나갔다.

정기예·적금 잔액 감소는 은행권의 예금리 하락과 지난달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영향으로 해석된

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5~3.55%로 지난 1월(연 3.55~3.6%)과 비교하면 최고 금리가 0.5%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7조8882억 원으로 지난 1월(590조7120억 원)보다 57조1762억 원 늘었다. 2월(614조2656억 원)보다는 33조6226억 원 큰 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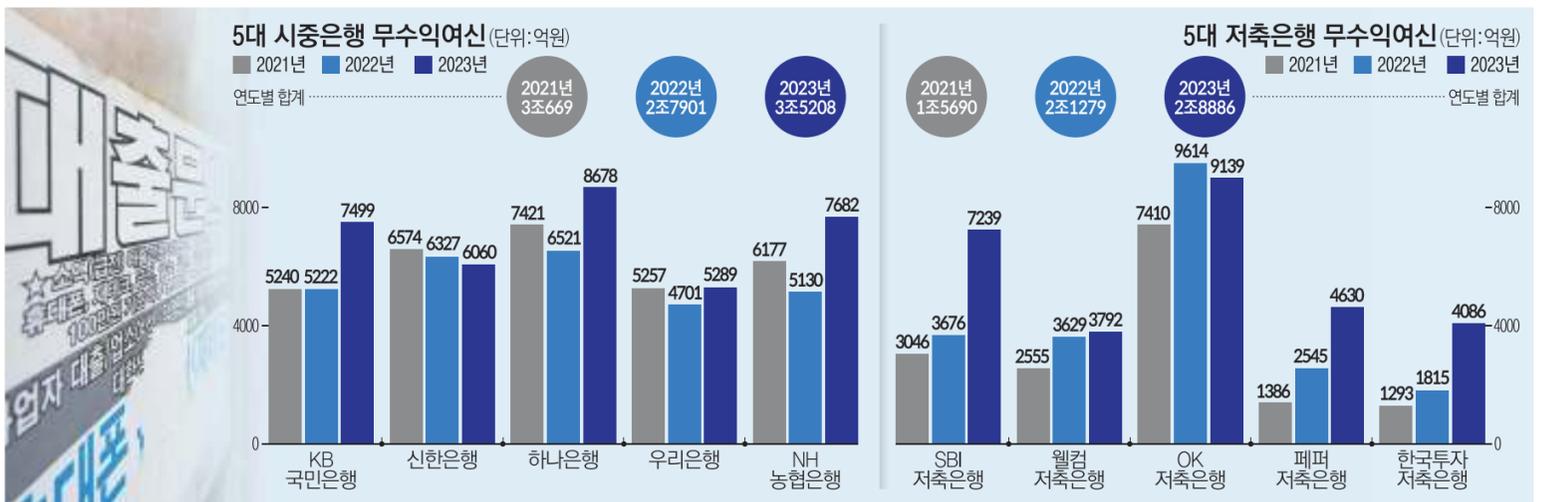
요구불예금은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만큼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증가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6조5229억 원으로 1월말(50조7434억 원)보다 5조7795억 원 늘었다. 최근 반도체주의 깜짝 실적 기대감에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이자 못받는 '강통대출' 급증... 시중銀도 저축銀도 '빨간불'

총선後 '4월 위기설' 모락모락  
고금리 장기화·경기불황 여파  
원금커녕 이자 갚을 여력 없어  
시중銀 무수익여신 3조5208억  
농협은행 1년새 49.7%나 '썩'  
5대 저축銀 2년새 84% '급증'  
PF부실 여파 건전성 우려 커져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저축은행까지 '폐인 돈'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갚을 여력이 갈수록 없어지면서 '무수익여신'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무수익여신이 급증하는 것은 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징조'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4월 위기설'이 총선이 끝나면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협은행 1년 새 49.7% ↑... "기업대출 강화 영향"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작년 말 기준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8억 원으로, 전년(2조7901억 원)보다 26.2%(7307억 원)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채권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폐인 돈으로 볼 수 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무수익여신이 2022년 말 513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682억 원으로 49.7%(2552억 원) 급증했다. 5대 은행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이어 △국민은행(5222억 원→7499억 원) 43.6% △하나은행(6521억 원→8678억 원) 33.1% △우리은행(4701억 원→5289억 원) 12.5% 순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6327억 원에서 6060억 원으로 4.2% 감소한 점이 눈에 띄었다.

5대 은행 무수익여신은 2021년 3조669억 원에서 2022년 2조7901억 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조5208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공격적인 기업대출 영업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고금리 장기화, 지속되는 경기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기업 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영향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전년 동월 대비 0.16%포인트(p)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대출을 강화해 만회하고자 했는데,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결국 얼마나 부실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5대 저축은행 폐인 돈 2년 새 84.1% 급증... PF 부실 여파 =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5대 저축은행(SBI·웰컴·OK·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무수익여신 규모는 2조8886억 원으로, 전년(2조1279억 원)보다 35.7%(7607억 원) 나 늘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무수익여신이

2022년 말 18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4086억 원으로 125.1%(2271억 원) 폭증했다. 같은 기간 △SBI저축은행(3676억 원→7239억 원) 96.9% △페퍼저축은행(2545억 원→4630억 원) 81.9% △웰컴저축은행(3629억 원→3792억 원) 4.5% 순이다. OK저축은행은 9614억 원에서 9139억 원으로 1년 새 4.9%(475억 원) 줄었지만, 무수익여신 규모 면에서는 5대 저축은행 중 가장 컸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2021년 말 1조5690억 원에서 2022년 말 2조1279억 원, 지난해 말 2조8886억 원까지 뛰며 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다. 최근 2년 새 84.1%(1조3196억 원) 급증한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

준대출 연체율은 6.55%로, 2015년 12월(9.2%)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로 전년 말(2.9%)보다 5.12%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여파에 대한 직격타를 맞으며 건전성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저축은행 업계의 1분기말 기준 연체율이 나오는 대로 현장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액이 늘어나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원리금 상환 유예를 계속 시켜줬던 정책이 끝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가계대출에 있어서도 당장은 대환대출 서비스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국민은행 ‘노후준비 콘서트’로 당신의 골든라이프 시작하세요”

올 첫 '시즌3' 행사 17일 개최

KB국민은행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동주최하는 은퇴자산관리 세미나 '당신의 골든라이프, 노후준비 콘서트 시즌3'의 올해 첫 행사를 이달 17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해 올해 시즌3를 맞은 노후준비 콘서트는 서울시와 국민은행이 함께 만들어 온 퇴직 준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오프라인 행사다. 서울시 주관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5%가 긍정(매우만족·만족)으로 답변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시즌3의 1차 행사에서는 연금 관련 강의와 함께 인문학 강연도 마련했다.

시즌3부터는 현장 질의응답(Q&A) 시간도 신설했다. 세미나 진행 중 온라인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기면 강의 종료 후 골든라이프센터장들이 직접 답변한다.

세미나 신청은 14일까지 'KB골든라이프X'와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서 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3년이상 운전 안했어도... 無사고자 車보험료 '뚝'

금융위, 8월부터 경력인정 기준 개선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은 6월 적용

8월부터 경력 단절 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 렌터카 운전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 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 후재가입 시 기존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총 29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며,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부여한다.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 해주며, 사고처리 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해부터 보험료 할인이 이뤄진다.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대상으로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 최소화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2021년 8월 1일~올해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처음 내놓는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법률비용 지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강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엘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상원 기자 jsw@

## 신한銀, 최고 年5% '청년 도약플러스 적금' 선보여

비대면 전용... 월납입 50만원 한도

신한은행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금액을 신한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해 청년도약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한 적금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다. 기본이자율은 연 4.0%이며 만기 시까지 신한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이자율 연 1.0%가 제공돼 최고 연 5.0%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상품이다. 신한솔(SOL)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월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다. 김법근 기자 nova@



## 삼성화재 '착한펫보험' 출시

반려견 의료·수술비 등 지원

삼성화재는 반려견을 위한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생후 61일부터 최대 1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특약에 따라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착한펫보험'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는 반려견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상원 기자 jsw@

# 삼성전자 8만5000 찍었다... 3년만에 시총 500조 탈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 원 시대를 다시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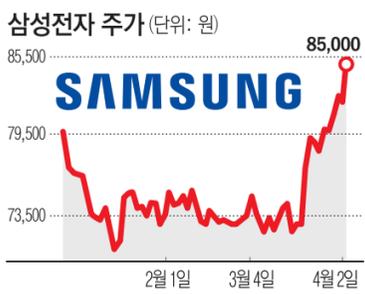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000원(3.66%) 오른 8만 5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07조4315억 원이다. 2021년 4월 20일(500조8647억 원)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3월 중순까지 7만 원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2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해 "검증중이며 기대가 크다"고 발언한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일비 3.66% 올라 신고가 경신  
영업익·주주환원 '장밋빛 전망'  
목표주가 10만전자로 잇단 상향

가장 큰 주가 상승동력은 장밋빛 실적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액 73조 1920억 원, 영업이익 5조1750억 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말 컨센서스보다 각각 1.2%, 2.9% 늘어난 금액이다. 영업이익은 1년 전 6400억 원과 비교해도 8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연간 9조8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중시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수급도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주식 순매수액은 사상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다. 그중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액은 6조6000억 원에 달한다.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평균 9만7857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9만9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과 이를 위한 테스트 승인 등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다"며 "삼성전자가 주 고객인 AMD에 HBM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연구원은

"2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 서버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일반 서버 수요가 함께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D램 3사(모두 HBM용 웨이퍼 할당을 크게 늘린 가운데 산업 전반의 재고가 정상화되면 작은 수요 변동에도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HBM의 공급과 레거시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목표가를 10만7000원으로 17% 높여 제시한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은 "그동안 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거인이 드디어 깨어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채권개미 원화채 '50兆 시대' ... "당장 차익보다 만기투자 선호"

기준금리 뛰며 채권금리 함께 쑥  
KB證 1분기 판매액 4.3조 돌파

정기예금 금리 최대 연 3.14%  
20년물 국고채권 연 3.3~3.4%  
향후 금리하락시 수익실현 기대

국고채		국고채 이외 채권	
국고 20-2(30년)	3조6825	농협금융지주31-1	1873
국고 19-6(20년)	3조250	농협금융 조건부(상)4	1852
국고 21-4(3년)	1조4711	에스케이하이닉스223-1	1699
국고 23-2(30년)	9015	신한금융지주 140-1	1608
국고 19-5(5년)	8759	우리금융조건부(상)6(신종)	1455



어지는데, 최근 지속된 고금리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한 개미들이 채권 매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국내 자산운용 한 관계자는 "이미 채권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서 지금 사두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엔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심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채권 투자는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빼면 중도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만기전 매도할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기업의 부도와 같은 신용위험도 있다.

이민항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채권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직장인 김 모(37) 씨는 '키움캐피탈' 채권에 지난달 25일 1000만 원을 투자했다. 만기인 내년 3월까지 보유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 보다 높다. 현재 매매수익률은 5.55%다.

김 씨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데다 11개월 후면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자금 운용이 여유가 있을 거 같아 처음으로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 투자가 인기가 있다. 개인 투자자 보유 채권은 50조 원을 넘어섰다. 원금이 보장되고 분기마다 들어오는 이자가 웬만한 투자처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아예 장기 채권

에 투자해 오르는 금리를 오랫동안 언급처럼 받겠다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와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개인의 원화채권 보유잔고는 3월 말 51조505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48조4132억 원보다 3조 920억 원이 늘었다. 2022년 9조 원대보다는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량채권은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 발행한 회사채(1000억 원)가 개인 투자자 수요 등으로 '완판'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가 발행한 월 이자 지급식 선순위

채권 390억 원도 완판됐다.

특히 국채가 인기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리테일(소매금융) 채권 판매액이 4조3000억 원을 돌파했다. 전체 리테일채권 판매액 중 개인투자자 대상 국채 판매액은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채 투자에 나서는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설명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기

예금과 비교해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고려할 때 개인들의 초장기 국채 선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에 연 3.14%를 형성 중이다. 반면 20년 이상 국고채권은 연 3.3%~3.4% 범위로 추후 금리 인하 시 듀레이션 효과로 인한 시세차익 효과도 있다.

전문가는 올해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로 '밸류에이션'을 꼽는다. 쉽게 말해 '싸다'는 의미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수록 떨어

## 주가도, ELS도 "바닥 안 보이네"... 투자자 울리는 테슬라

회사원 김모(31)씨는 지난해 중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에 2000만 원을 투자했다.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ELS에 투자했다가 적잖은 손실을 본 상황에서 주식으로 치면 '물타기(주가가 낮을 때 매수해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투자 기법)'를 한 것이다. 김씨는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내렸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했다.

테슬라 기초자산 ELS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가 230~26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던 12월 발행된 테슬라 기초자산 ELS는 58개다. 원화, 외화합산 1067억 원어치가 팔렸다. 테슬라는 12월 최고가(261.44달러) 대비 32.97%나 하락했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지만 ELS는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ELS도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보다 40~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60~65% 미만이면 원금의 100%까지 잃을 수 있다.

테슬라 주가 12월 최고점일 때 발행된 '유진투자증권484' ELS는 테슬라와 AMD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70% 이상이면 조기상환되나 만기평가일에 기초 자산 대비 40% 하락한 상태이거나 60% 넘게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달 발행된 '하나증권15375' ELS

는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55% 미만이면 20%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적잖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지난해 만기 상환된 AMD와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26개의 평균 수익률은 -38.45%였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23개의 평균 수익률도 -12.62%로 저조했다.

국내의 증권가는 테슬라 주가가 당분간 회복세에 접어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인 데다, 중국 전기차 경쟁업체들이 급부상하며 향후 실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웰스파고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매도)로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125달러까지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220달러에서 190달러로, UBS는 기존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각각 내렸다.

윤혜원 기자 hwyoon@  
박민규 기자 pmk8989@

## '완성차 황제'의 화려한 귀환 현대차 신용등급 다시 'AAA'

현대자동차가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에 복귀했다. 신용등급 'AAA'는 국내 신용등급 체계상 최상위 등급으로 한국전력이나 인천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금융사와 통신사, KT&G 등 밖에 없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2일 현대자동차의 장기신용등급을 직전 'AA+', 긍정적에서 'AA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AA+를 받은 후 4년 만에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AAA는 나신평의 10개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반적인 재무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뜻한다.

나신평은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우수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경쟁력 제고로 주요 시장 매출 비중이 확대됐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믹스 개선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 영업수익성 개선 폭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나신평은 "현대차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보유에 따른 재무적 완충력을 지녔다"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말 현대자동차는 차량 연결 기준 부채비율 61.6%, 순차입금 마이너스(-) 16조 원을 기록했다. 기아 역시 부채비율 73.2%, 순차입금 -16조 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박상우 “지난 정부서 막아놓은 부동산 규제 풀 때 됐다”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병 나으면 약 안 먹는 게 맞아”**  
**재조환·분상제·안전진단 지목**  
**건설사 4월 줄도산 위기설 일축**  
**“부동산 쇼크 안되게 관리가능”**  
**“전셋값 상승 위험 수준 아나**  
**공급부족 조금 나아지고 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조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정책 방향을 밝

혔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막아놓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며 “약은 병이 나오면 안 먹는 게 맞아”는 말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추진할 규제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 “재건축을 막기 위해 해왔던 법”이라며 재조환법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의무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재조환법의 경우 완전히 없앨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시장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며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수익이 남을지 의심스러운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조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

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위험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아닌가 싶다”며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 쇼크로 번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가진 컨센서스(합의점)은

PF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며 “우려했던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났다. 작년 말 태연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F 자기자본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며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je@

## 법인 부동산 매수, 서울만 늘고 지방은 급감

법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가 일 년 내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법인 매수는 투자 성격이 짙고, 상가나 토지 등 대형 부동산 거래가 많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거래 증가세가 포착된다. 다만,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법인 매수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법인 매수 건수는 2075건으로 지난해 3월 2042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2023년 2월) 서울 부동산 법인 매수량이 15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5% 급증한 수준이다.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는 법인 매수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9월 1405건으로 연내 최저 수준 보였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 1월에는 1902건을 기록하고 2월 2000건을 돌

**2월 서울 법인 매수 2075건**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서울 외 수도권·지방은 저조**  
**양극화 속 경기 상승 기대도**

파했다.

법인의 아파트 거래량만 때놓고 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아파트 매수량은 2월 15건으로 1월 28건에 이어 계속 늘고 있다. 서울 내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는 지난해 2월 8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9월에는 7건까지 등락을 거듭했지만, 올해 들어선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거래량을 보이는 등 거래량 우상향 중이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법인 매수세는 시들하다. 법인 등기정보 광장 통계 기준으로 2월 전국 부동산 매수량은 1만 256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9월 1만 258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의 법인 매수량이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다.

수도권도 서울을 제외하면 법인 매수세가 뜸했다. 경기도는 2월 1132건으로 1월 1618건보다 거래량이 적었다. 인천 역시 2월 414건으로 평년 수준을 기록했다.

세종은 2월 기준으로 14건만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3월 118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법인 거래는 주로 대형 부동산 거래에 집중되며 투자 수요가 주를 이룬다. 2020년 이후 집값 급등 당시 법인 거래가 대폭 늘면서 집값 상승 견인차 역할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법인 매수세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저조했다. 시장 내림세가 이어지는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고(高)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자 법인 매도세가 눈에 띄게 늘고 등 시장에서 발을 빼는 법인이 더 많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 금액이 저렴해졌을 때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일부 늘어난 것”이라며 “서울은 저렴한 매물을 중심으로 법인 수요는 물론 개인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그 외 지역 수요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주 금호동...2772가구 분양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역조감도. 사진제공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총 3개 블록인 △1BL(929가구) △2-1BL(915가구) △2-2BL(928가구) 등으로 나누어 조성된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공원(10개 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243만 5516㎡ 규모로,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8개 테마 숲과 11개 마을 숲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퍼스, 정원박람회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들도 구축된다.

교통 개발 기대감도 높다. 단지 인근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 역부터 광주시청까지 이어지는 이노선이 개통되면, 광주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군으로는 1BL 인근에 화정남초, 성진초, 광덕중, 광덕고 등이 가깝다. 2BL 주변으로 화개초, 윤리초, 광주중, 윤리중, 풍암고 등이 있다.

단지에는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로 손꼽히는 아크리니아(Arclinea)를 비롯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와 데이코(Dacor) 등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한다.

한진리 기자 truth@

## 성산로·왕십리·북한산·중랑천·노해로 일대 서울시 ‘강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곳 선정

**베드타운 탈피 新경제도시로**

50여 년간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성산로·왕십리·북한산·중랑천·노해로 일대가 신속추진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갖춘 신(新)경제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강북권역의 경제활성화에도 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대상지 5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만 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 3만㎡) △북한산 시민

전문대 건립(강북구, 1만 5635㎡) △취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만 6000㎡)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노원구 1만 5750㎡) 등 5건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된다.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5개 신속추진사업은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32가구 공급

**수도권 1398가구...8일부터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차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 I·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 I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II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폭발적이지만 정숙한 의 전기차 방향성



## BMW 5시리즈 첫 전기차 'i5'

키드니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  
전통성 계승한 새로운 디자인

최고 340마력 폭발적 가속력에  
소음·진동은 최소화한 '고급세단'  
5시리즈 전기차 전환 선봉장에

BMW 5시리즈의 첫 전기차. BMW i5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다. 문장은 짧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BMW의 한 축을 맡고 있는 5시리즈의 전기차 시대를 여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BMW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i5를 통해 BMW의 미래를 그려본다.

### 새로운 형태의 키드니 그릴... BMW의 과거·미래 모두 담은 디자인

BMW 5시리즈가 차체를 키운 만큼 i5도 '준대형' 차급이 어울리

는 충분한 크기를 갖췄다. i5의 차체는 전장 5060mm, 전폭 1900mm, 전고 1515mm, 휠베이스(축간거리) 2995mm다. 현대자동차 그랜저(GN7)보다 전장, 전고, 전폭 모두 조금씩 더 크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BMW의 상징과도 같은 '키드니 그릴'이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며 내연기관차의 상징인 전면 그릴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브랜드도 있지만 i5는 전통을 계승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맞춰 '키드니 아이코닉 글로우'로 새로운 디자인도 선보인다. 그릴의 형상을 따라 조명을 배치해 어두운 곳에서도 BMW의 모델이라는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측면에서는 BMW 특유의 스포티한 비율이 눈에 띈다. 중후한 멋을 드러내다가 보단 세련되고 달려나갈 듯한 느낌이다. 불필요한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없애며 깔끔한 느낌도 더해졌다. 하단 캐릭터라인은 뒷바퀴를 향해 솟아오르는 형태를 적용했다. 전용 휠이 제공되는 점도 i5의 디자인적 장점 중 하나다.

실내로 들어오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를 합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온다. 디스플레이 근처 물리버튼은 최소화됐으며 기어 노브는 스위치 방식이 적용됐다. 2열 공간감은 적당한 수준이다. 덩치 큰 성인이라도 타기에는 전고가다



소 낮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평균 키의 남성이 앞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휠베이스가 3m에 가까운 만큼 앞뒤 거리는 충분하다. 트렁크 공간은 꽤나 깊게 만들어져 있지만 다소 아쉽다. 커진 차체를 적재 공간보다는 탑승 공간에 할애한 느낌이다.

i5(eDrive40 모델 기준)의 가격은 9390만원 ~ 1억170만 원이다.

### 폭발력 갖추고도 편안함·정숙함 모두 잡아낸 주행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한 만큼 '폭발력' 자체는 거의 모든 전기차가 갖는 특징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i5의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이다. 전기차 특유의 가속력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고급 세단과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이다.

제원상 i5(i5 eDrive40 기준)는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는 40.8kg·m,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6초의 성능을 자랑한다. 1개의 전기 모터만으로도 실생활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이는 셈이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21인치 휠 기준 384km로, 국내 판매 사양인 19·20인치 휠을 적용하면 400km를 넘긴다.

초반 가속 구간에서는 계기판을 통해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바퀴를 더 빠르게 굴리는 가속 상황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시속 100km 수준으로 속도가 붙어도 도로에서 느껴지는 소음, 진동은 없다. 주행으로 인한 불편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풍절음 역

시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엔진 소리가 없어 심심하다면 음악

계 저장 한스 짐머의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통해 가상의 엔진음을 활용하는 것도 사소한 재미다.

속도를 꽤나 붙인 상태에서 방향 전환, 코너링도 훌륭하다. BMW 특유의 전후 50대 50 무게 배분은 물론 배터리 장착으로 인한 낮은 무게 중심으로 바닥에 붙어서 달린다는 느낌이다. 후륜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도 전반적인 승차감 개선에 영향을 끼친다.

### 'BMW가 그리는 전기차' 녹여낸 i5

i5의 굽직한 방향성은 BMW 특유의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 계승이다. 동시에 아이코닉 글로우 등의 요소를 통해 새로운 요소를 하나, 둘 더해가며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i5는 5시리즈의 전기차 전환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선봉장이다. 내연기관차의 강자로 군림한 BMW가 전기차 시대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여줄 것인지 i5에 섬세하게 녹여냈기 때문이다. BMW의 감성을 담은 전기차를 찾는다면 답은 어렵지 않다. i5다.

이민재 기자 2mj@

## 전기차 가격경쟁 부른 LFP 배터리... 후발 K-배터리 신기술 총력

전기차 시장이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열리 어답터 중심의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전기차가 진 몇 가지 난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전기차의 높은 가격,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 등이 전기차 구매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완성차 업체들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된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등 비싼 광물을 값싼 인산철로 대체해 가격을 20~30% 낮췄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LFP 배터리는 크리스탈 형태의 육면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격자 구조인 '올리빈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과충전이나 과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낮고 수명도 긴 편이다.

삼원계 대비 저렴... 소비자 진입문턱 낮춰  
중기업 강세 속 국내 기업 뒤늦은 출발  
LFP·망간 혼합한 LFMP 배터리 등 개발

다만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LFP 배터리를 속속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테슬라가 '모델 3'과 '모델 Y'에 잇달아 LFP 배터리를 실었고, 국내에서도 기아가 지난해 출시한 '레이 EV'와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됐다.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이 시장 점유율



삼성SDI는 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에서 ESS용 배터리 셀 라인업과 함께 개발 중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전시한다. 사진제공 삼성SDI

25.8%로 LG에너지솔루션(24.4%)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BYD와 CALB의 점유율은 아직 한 자릿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61%, 594%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기업들도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 수요에 발맞춰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다. 시장 진입

은 다소 늦었지만,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LFP 배터리를 통해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SK온은 지난달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윈터 프로(Winter Pro)' LFP 배터리를 선보였다. 기존 LFP 배터리는 영하 20도 이하 저온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70%까지 감소하고, 충전 성능도 급격히 떨어진다. SK온이 개발한 윈터 프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19% 높이고도 저온에서 충·방전 용량을 각각 16%, 10% 늘렸다.

LFP 배터리에 망간을 혼합한 'LFMP' 배터리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망간 역시 가격이 저렴해 LFP와 동일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15~2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진입에 늦은 만큼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기술력'에 집중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한... 건강상 우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전자상거래 막는 건 구매 자유 침해” 안경사, 위반혐의 불복... 위헌 청구 현재 “상품 변질·안내 미숙지 위험 눈건강 보호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 제청신청도 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콘택트렌즈는 규격화된 기성품”이라면서 구매자가 시력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규격을 알게 된 뒤에는 안경사에게 별도의 처방을 받을 필요 없이 단순 반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콘택트렌즈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 고객의 선택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보다 엄격했다. 현재는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

용하는 물품이므로 그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정확한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안경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면 판매를 해야 보편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 오염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점, 비대면 판매 시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현재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

려할 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안전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인 이상 일부 소비자 불이익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일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영진 재판관은 비대면 판매 시에도 사용방법과 유통기한·부작용 등을 소비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점, 구매는 전자상거래로 하되 콘택트렌즈 제공을 안경업소에서 직접 하는 대안이 존재하는 점, 의료기기법에 따른 잠재적 위해성 등급에 따라 규제 정도를 달리하거나 처방전을 전제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꽃 기자 pggot@

〈정시〉

## 서울대 의대 합격생 25% 영재·과학고 출신이었다

최근 3년간 최다... 연세대 20% 과학·수학 인재양성 취지 어긋나 “의대 쏠림 막을 근본 대책 필요”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0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서울대 의대 합격 인원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 2024학년도 10명으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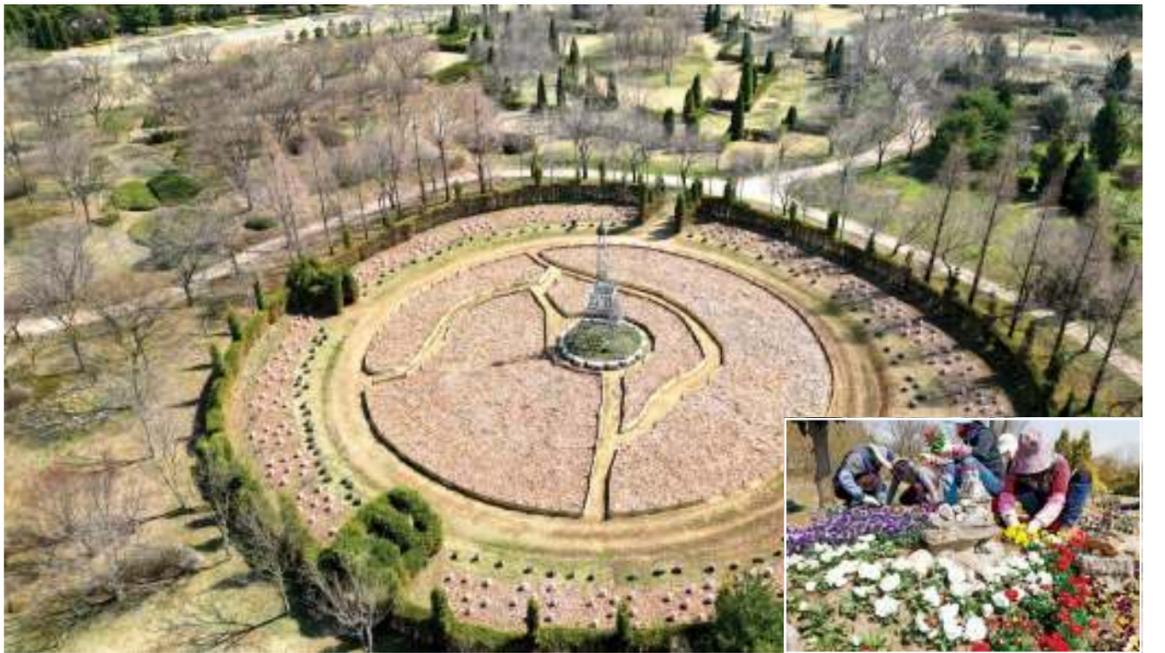
연세대 의대는 올해 전체 합격자 123명 중 영재학교 출신이 20명, 과학고 출신이 5명으로 전체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는 95명 중 15명(15.8%), 서울대는 138명 중 11명(8.0%), 울산대는 40명 중 3명(7.5%)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빅5 의대 중 성균관대 의대를 제외한 서울대·연세대(서울)·가톨릭대·울산대 의대 합격생의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올해 기준 총 54명으로 전체 13.6%를 차지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수학 등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로 진학할 경우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나서면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겪는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고, 이공계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입 제도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반가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2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모습. 이날 개장을 시작한 드림파크 야생화공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연탄재 야생화로 쓰이던 46만8000㎡ 면적의 터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작은 사진은 야생화단지에서 관계자들이 꽃을 심고 있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 한국 하면 7년째 ‘K팝’ ... ‘BTS·이민호’ 가장 선호

문체부,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호감높은 국가, 인니·태국·아랍 순 드라마는 ‘오징어게임’ 3년째 1위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이 K콘텐츠에 호감을 표시했다. 호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7년 연속 K팝으로 조사됐다.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영화는 ‘기생충’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가장 선호하는 가수는 방탄소년단, 배우는 이민호(사진)가 선택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를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호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86.3%)였다. 이어 인도(84.5%), 태국·아랍에미리트(83.0%), 베트남(8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해 K콘텐츠 관심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집트(67.6%)였다. 이어 인도(67.1%), 사우디아라비아(65.1%) 순이었다. 중동 국

가에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K팝(17.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K팝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조사됐다. 이어서 한국 음식(13.2%), 드라마(7.0%), 정보기술(IT) 제품/브랜드(6.3%), 화장품(5.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K팝 스타는 방탄소년단(29.1%), 블랙핑크(13.1%)로 각각 6년과 5년 연속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싸이(2.9%), 정국(2.7%), 아이유(2.1%)로 순으로 조사됐다. 트와이스, 리사, 엑소, 지드래곤, 스트레이 키즈, 빅뱅도 순위권에 포함됐다.

‘오징어게임’은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꼽혔다. 응답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1.3%, 2023년 9.0%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더글리(3.4%)와 킨더랜드(2.6%)로 조사됐다.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 7.9%를 기록, 5년 연속 1

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행(6.0%),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2.4%), 발레리나(2.0%), 유명(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1%로 8위를 차지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로는 이민호(6.4%)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빈(3.4%), 송혜교(2.7%), 공유(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석, 김수현, 수지, 박서준, 송중기, 아이유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K콘텐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이라는 비율이 24.9%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8년 때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획일적이고 식상’,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율이 각각 22%, 21.1%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센터 개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K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 호랑이·하마 눈앞에... ‘윈더파크’로 나들이 가볼까

서울대공원, 이달부터 시범 운영

서울대공원은 4월부터 디지털 미디어 테마공간 ‘윈더파크’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윈더파크는 서울대공원 입구인 종합안내소 건물에 조성됐다.

윈더파크는 ‘동물과 사람, 생태계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우리 지구’를 주제로 총 1500평 규모로 10개 공간으로 운영된다. 육지, 바다, 사막, 동굴 등 지구 다양한 분야의 동물과 생물 등 생태계를 미디어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윈더파크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벽면과 바닥에 호랑이늑대, 하마는 물론 각종 야생 새들이 마치 실제처럼 움직이는 공간

‘위대한 숲’을 만날 수 있다. 실제 정글, 폭포도 구현해 야생 속에 사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증강현실 앱을 통해 다양한 동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동물도감도 완성할 수 있다.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생태를 알아보는 ‘곤충나라’도 새로운 볼거리다. ‘열음공원’에서는 조그마한 공을 벽으로 던져 대기오염과 쓰레기를 물리치고, 북극곰을 구하는 게임도 체험해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 윈더파크 관계자는 “윈더파크에서는 다양한 어드벤처를 체험해볼 수 있고 각 테마마다 각양각색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 봄철 산불예방·멧돼지 포획... 도봉구 '안전한 동행'

## ☞ 區석區석

### 오연석 구청장의 '안전한 바퀴'

“둘레길 길목 앞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감지해서 산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2일 방학동 전형필 가옥(간송 옛집) 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초입에서 본지와 만나 “관내 특성상 산을 다니시며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구청장은 이어 “올해부터 둘레길 주변에 CCTV부터 시작해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멧돼지 포획틀과 펜스를 더 확충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도봉구에는 봄철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과 인근 산책길을 걷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올해 구는 해마다 봄철 산불로 인한 위험과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날 민방위복을 입은 오 구청장을 필두로 이성일 도봉구 공원여과과장, 신운상 도봉구 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은 안전 점검을 위해 산에 올랐다. 매달 오 구청장이 진행하고 있는 ‘구청장의 안전한 바퀴’ 현장이다.

3km 차단펜스 놓고 포획틀 34개 야생동물 등 구민 피해예방 조치 시기별 제설·폭염 등 매달 점검

현재 구는 관리초소, 간이 초소, 진화장비보관함, 고압 수관보관함 등 총 13곳에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고 있다. 진화장비 보관함에는 등짐펌프 10개, 삽 5개, 갈퀴 5개, 소화기 1개가 들어있다. 이를 통해 소방차나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등짐펌프를 활용해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산불을 진화하도록 돕고 있다.

이날 오 구청장은 등짐펌프 등에 짊어지고 잔디가 난 곳을 향해 물을 뿌리며 산불 진화 시연에 나섰다. 오 구청장은 “산불 같은 것은 처음으로 발견한 주민들이 직접 진화해야 큰불을 막을 수 있다”라며 “언제든 진화장비보관함이 열려있으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일 공원여과과장은 “등산객들이 초기에 진화할 수 있고 외부에서 (소방관이나 소방차)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화장비보관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는 최근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출몰 신고가 늘어난 것



오연석 도봉구청장이 산불예방 및 멧돼지 포획 현장점검에 나서 포획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도봉구

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구는 멧돼지를 총 19마리 포획했다. 지난 2월에도 국립공원 내 별별 모험놀이터에 멧돼지 4마리가 출몰함에 따라 구는 “인근 주민들께서는 외출 자제 및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관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

지 개체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2019년 26마리 △2020년 35마리 △2021년 15마리 △2022년 33마리 △2023년 115마리로 나타났다.

현재 구는 멧돼지의 길목을 막기 위해 차단 펜스를 총 3426m 설치했다. 민가와 가깝게 내려올 경우도 대비해 예산을 들

여 ‘멧돼지 포획틀’도 34개 설치했다. 멧돼지 포획틀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가 가장 많다. 올해 구는 상반기 중으로 녹야선원, 금강사 경계부 등에도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오 구청장 일행은 또 다른 북한산 둘레길 입구로 이동해 멧돼지 관련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오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산에서 멧돼지들이 먹을 게 많이 없다 보니 민간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며 “혼자 산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행하거나 등산스틱도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은 “국립공원 내에서는 멧돼지를 임의로 포획이 불가하고 주객이 근처에 내려왔을 때만 포획이 가능하다”라며 “현재는 고구마나 양배추 같은 것을 포획틀에 넣어서 유인하고 사살 후에 소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매월 ‘구청장의 안전한 바퀴’를 통해 관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례로 1월에는 제설 현장, 2월에는 해빙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7월 수해대비, 8월 폭염대비를 주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구는 점검에 따라 현장 조치, 보수보강,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빈 기자 chaebi@

## 양천구, 공원 '책심터'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양천구는 공원 속 복합문화공간인 책심터 5곳에서 매월 새로운 테마로 꾸며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2020년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파리·넙음들·용왕산·오목공원까지 총 5곳에 책심터를 조성·운영해왔다. 주민들은 공원 특색을 살린 월간 테마 프로그램

에 참여해 자연을 벗삼아 독서, 휴식, 문화 활동을 즐겼다. 지난해 운영한 북테라피, 테라리움 등 총 143회의 책심터 프로그램에는 1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올해 책심터의 연간 테마는 △4월(봄) △5월(가축) △6월(환경) △7월(문화) △8월(여름) △9월(명절) △10월(가을) △11월(마음치유) △12월(겨울)

로, 사계절의 생동감을 살리면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색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테마는 책심터 5곳에 통합 적용된다. 월 2회 지정된 요일에 아동·성인대상 소규모 참여 프로그램과 분기별 대규모 특별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해 지속적인 방문자 유입과 책심터 인지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천공원 책심터에서는 △보존화(프리저브드) 액자 △자석 클레이 무드 등 만들기 등 공예 강좌를 운영한다. 10월에는

양천구 1호 책심터 개관 4주년을 맞아 책과 자연, 놀이를 접목한 기획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다.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공원인 파리공원 책심터에서는 프랑스문화원과 연계한 △프랑스 영화 상영 △미니화분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7월에는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 문화 프로그램과 파리공원의 명소인 바다분수를 활용해 구민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천구 공원 책심터 프로그램은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이달부터 선착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기에 양천구청장은 “도심 공원 속 ‘사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양천구 책심터에서 사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심터가 문화, 휴식, 놀이를 결합한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ro

**굿네이버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  
향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행복이 되는  
이런 집을 만드세요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이 바라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

[ 임대주택 14만호 운영 ]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자에게 든든한 내일

[ 아이 키우기 좋은 3기신도시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긴급급주거지원 4만호 ]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 희망의 시작 뉴·홈 ]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나에게 맞는 집

# “기술경영 기초 닮은 그 열정, 영원히 기억할 것”

## 조석래 명예회장 영결식

마포 본사·FKI타워·반포 사옥  
거쳐 경기도 효성가 선영으로  
“국가와 국민 위해 사업 키우라”  
임종 앞두고 마지막 유언 남겨

‘섬유의 거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일 오전 치러진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유족들은 조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됐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마치고,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로 이동했다.

영결식은 오전 8시부터 지하 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등 유족과 이흥구 명예장례위원장(전 국무총리), 이상운 장례위원장(부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한 일경경제협회 회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효성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추도사, 류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유족을 대표해 조 회장이 인사말



효성그룹 임직원들이 2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했다.

류진 회장은 조사에서 “대한민국 경제계의 큰 어른을 떠나 보내는 슬픔과 허전함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다”며 “조 명예회장은 기술개발을 선도하신 경영인이셨다”고 애도했다. 그는 “(조 명예회장은) 보기 드문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로서, 경제기술세미나에 참석하셨을 때 중간에 미동없이 끝까지 정경하셨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대한민국 기술 경영의 기초를 마련하신 회장님의 열정을 후배 경제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운 부회장은 “명예회장님께서서는 쉽 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분이셨다”며 “여느 기술자보다 해박한 지식으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했고,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을 먹더라도 우리 기업, 국가 경제를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던 강직한 모습이 그림자”며 “회장님께서 남기신 업적을 기리고 전하며, 그토록 사랑하셨던 효성과 대한민국의 힘찬 성장을

만드시 일궈내겠다”고 마무리했다.

상주인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평생 효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셨다”며 “자신보다는 회사를 우선하고, 회사에 앞서 나라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력,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 1등에 대한 무서울 만큼 강한 집념의 결정체”라며 “아버지께서는 효성을 새벽을 밝히며 빛나는 새벽 같은 회사로 키우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재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효성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명예회장은 임종을 앞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업을 번창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결식 후 운구차는 마포 본사를 떠나 고인이 생전 회장을 맡았던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와 서초구 반포 효성 사옥을 순례하고 장지인 경기도 선영으로 향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최일영 한양대 명예교수 선정



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구 보령제약)이 주관하는 제 40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최일영(사진) 한양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최일영 명예교수는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 교수는 1940년생으로 전남의대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저지 무렌버그병원, 뉴욕 슬론케터링암병원 연수 후 한양대병원에서 부임해 내과 주임교수, 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재직 시절 1990년 태국 의료봉사를 계기로 몽골, 라오스 등 해외를 비롯해 국내 여러 곳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해왔으며, 2005년 한양대병원을 정년으로 퇴임한 후 본격적인 의료봉사에 뛰어들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음성꽃동네인국자에 병원 내과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우리銀 ‘사고 Zero 서포터즈’ 발대



우리은행이 ‘2024년 금융사고 제로(Zero) 은행’을 위한 ‘사고 Zero 서포터즈’ 2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Zero 서포터즈는 검사기능 혁신 추진 계획 중 일환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완성을 위해 도입했다. 우리은행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 있는 젊은 직원을 별도 선발해 임명한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 2기 68명은 내부통제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영역을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필요 사항을 검사본부에 전달하는 내부감사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등 ‘사고 예방 보안관’ 역할도 담당한다.

유혜영 기자 haha@

## 인사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김영민 △염경윤 △이상규 △정남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청년주거정책과장 하정훈 △철도은행안전과장 한성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사회혁신정책팀장 박노인 △전략기술기획본부 기술에측센터장 신동평
- ◆ABL생명 <승진> ◇부장 △상품개발부 홍승우 △상품혁신부 윤주연
-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 △김민승 △최유영

## <롯데케미칼 대표>

# 이훈기, 취임 첫 현장경영 화두는 ‘안전·고부가소재’

## 여수·울산 공장, 계열사 찾아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취임 후 첫 현장 경영으로 롯데케미칼 여수·울산 공장 및 계열사 롯데정밀화학, 합작사 롯데이네오스화학을 찾았다.

2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여수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전반을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오후에는 첨단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 의무 준수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과의 자리를 통해 “안전환경 사고 예방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현장의 근간”이라며 “지금은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견고한 실행력과 체질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강화와 더욱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스페셜티 전문 화학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 울산 공장을 찾아 사업장 전반을 둘러보며 그린소재와 스페셜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합작사인 롯데이네오스화학을 방문해



이훈기(맨 오른쪽)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컨트롤룸에서 공장 가동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산과 초산비닐(VAM)을 생산하는 기술력 등을 점검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롯데케미칼 대표 겸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 대표로 선임된 이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을 강조해왔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 시장이 침체된 상황

에서 신사업의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초소재 △스페셜티 △정밀소재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 5개로 구분하고, 범용 석유화학 비중을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스페셜티를 비롯해 전지소재·수소에너지 등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왼쪽부터 황문호 사외이사 차우철 대표이사, 최성민 노동조합위원장, 신동권 사외이사, 이황 전 사외이사. 사진제공 롯데GRS

## 롯데GRS,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신사옥 ‘79스퀘어’ 문열어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GRS는 2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신사옥 ‘롯데GRS 79스퀘어(SQUARE)’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에는 롯데GRS의 차우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황문호 사외이사, 신동권 사외이사, 이황 전 사외이사 등 임원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신사옥 ‘79 스퀘어’는 창립 연도인 1979년과 사각 형태의 사옥 외관과 소통 광장의 의미를 담은 스퀘어를 합성해 이름 붙였다. 롯데GRS의 45년 간의 외식 사업의 유산과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의미다. 신사옥은 본관과 별관 총 2관이며, 전체 6942㎡(약 2100평)

규모로, 지난달 22일 독산동 사옥에서 이 전해 1일까지 이사를 완료했다.

차우철 대표는 “롯데GRS는 올해 창립 45주년 전통의 기업으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회사이기에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하고 도와주는 조직문화로 임직원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79 스퀘어에서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 부음

- ▲김진구 씨 별세, 최창선(NH투자증권 NH인재위원장) 씨 장인상=1일, 일산동국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후 1시 30분, 031-961-9400
- ▲김지용(전 문화일보 부국장) 씨 별세, 신정숙 씨 남편상, 김유경(우아한형제들 홍보기획팀장)·양미·은강(서울경제신문 기자) 씨 부친상, 신자영(삼성전

- 자 부장)·황지희(씨모피셔사이언 차장) 씨 시부상 = 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18
- ▲현순철(전 태평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씨 별세, 현경식(상립교회 담임목사)·정식(두릭스 사장)·우식(연세대 객원교수)·혜란(두리코씨엔티 실장) 씨 부친상, 김주완(두리코씨엔티 대표이사) 씨 장인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22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000
- ▲이기산(전 대동건설 대표) 씨 별세, 전명순 씨 남편상, 이영선·영숙·영순·정민(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장)·경희 씨 부친상, 김창환(전 서울대 초빙교수)·오광건(단국대 초빙교수·전 언론중재위 사무총장)·양지겸(선교사) 씨 장인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2-3410-6917

- ▲황문장 씨 별세, 황경옥·경애 씨 부친상, 조상기(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김범석 씨 장인상 = 1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32-580-6671
- ▲김광자 씨 별세, 이숙현·희현·승현(군산시청 동물정책과 과장) 씨 모친상, 함경남(함스피알 대표) 씨 장모상 = 2일,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의전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63-472-5908

### 마감 후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 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이카



**박 일 경**  
사회경제부 차장

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직권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격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맞으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 재판 본연의 임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 의정갈등, 대화만이 해법

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직역을 이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지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든다. 국어사전에는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정의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자진 복귀하면 면허 정지 등 책임을 감경하겠다고 달랜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마켓’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의정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본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정책 판단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직권남용은 형사 처벌보다 내부 징계 대상에 가깝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폐지하지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나와 입장이 반대되는 상대방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때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이라고 비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로 풀고 합의하면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될 필요도 없을뿐더러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 까 싶다. 대통령 담화에서 “열려 있다”고 했으니 의사들도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ekpark@

###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조지 허버트 명언

“한 명의 아버지가 백 명의 교장을 이긴다.” 영국의 목사다. 성직자의 꿈을 안고 37세의 나이에 가난한 마을의 목사가 된 그는 형이상학과 시인이기도 하다. 구어적 표현, 비근한 이미지, 유연한 시형이 특색인 그의 유일한 시집 ‘성당’은 그가 죽은 뒤 출판됐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93~1633.

#### ☆ 고사성어 / 부자지효(父慈子孝)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한다’라는 말.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다는 뜻이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열 가지의 의(義)를 논한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나온다.

전통적 유교사상은 효(孝)를 중시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강조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일방적인 도덕적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뒷사람이 먼저 배풀어야 아랫사람이 따르고 존경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뒷사람이 바르게 대하고 사랑하고 인도해

야 따르는 아래 사람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 ☆ 시사상식 / AI 워싱(AI washing)

실제 AI(인공지능)와 별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제품을 마치 AI 기술 중심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AI 기술 발전과 시장 기대를 이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AI 워싱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신뢰성 손상, 시장 투명성 우려를 일으킬 수 있으며, AI 기술 사용 주장 기업 중상당수가 실제로 AI 기술 활용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소비자 기대를 저버리고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기반 제품의 과장 광고부터 허위·조작 광고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 ☆ 고운 우리말 /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의 부사.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 논현로

**윤 기 설**  
한국중은일자리연구소장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 이론이다. 아무리 극렬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격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을 부추기고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선 유럽 선진국을 보면 이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다양한 근로시간 체제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1980년대까지 주40시간제를 채택하던 금속산업 노사는 1990년대 들어 단계적 감축을 통해 1995년 근로시간을 주35시간까지 줄였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독일 경제가 불황을 겪자 노사는 2004년 획기적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근로시간보다 5시간 많은 주40시간 근로에 합의한 것이다. 그것도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금속산업의 대표 격인 지멘스는 한술 더 떴다. 아예 ‘임금인상 없는 주42시간 근무’를 노조로부터 쟁취(?)했다. 금속산업 협상에 앞서 미리 패턴교섭으로 진행된 지멘스 협상에서 회사 측은 노조가 주35시간 근로

를 고집할 경우 노동비용이 적게 드는 헝가리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노조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노동생산성의 높고 낮음보다 조직논리와 투쟁만능주의에 경도돼 있는 한국 노동현장에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협상들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2000년 연간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시켰다가 경제악화로 이를 보완한 적이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

##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 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 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일자리는 늘지 않고 노동비용만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타격을 우려한 프랑스 정부는 주35시간에 대한 수술을 감행했다. 2002년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또다시 220시간으로 확대했다. 단기적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했다. 고용창출과 워라밸(직장과 삶의 균형)이라는 주35시간의 취지가 퇴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크롱 정부 들어서도 주35시간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노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주4일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약속했고,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주4일제, 새로운미래는 주35시간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을 찾아가 “주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주4일제를 제안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4일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단체도 출범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싫어할 근로자가 어디있겠나. 일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는 직장이 있다면 누구든 취업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따낸다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잃을 게 뻔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2021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2.9달러로 미국(74.8달러)의 57.4%, 독일(68.3달러)의 62.8%에 불과하다. 프랑스(66.7달러), 영국(59.1달러), 일본(47.3달러)에 비해

서도 많이 뒤떨어진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4일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주52시간제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4일제를 들고나온 것은 노동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보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주4일제인지 궁금하다.

## ‘규제 덩어리’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 노트북 너머

**문 현 호**  
생활경제부 기자



새봄이 찾아왔건만,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이마트에 때아닌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쳤다. 근속 15년 이상, 과장-수석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한다. 그동안 알음알음 점포별 희망퇴직은 받았지만,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한 것은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실적 부진이 그 이유다.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9조472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4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였다. 이마트만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다. 롯데마트도 작년 말 시니어급 전 직급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2021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다.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은 매년 고조되고 있다. 오프라인 위주 유통 생태계가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최

지 배송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대형마트의 주주목인 신선식품 판매에도 나섰다.

대형마트업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가 부디 다음 국회에선 깔끔히 뽑히길 바란다. m2h@

# ‘양안갈등 폭발’ 도화선 경계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발언 핵심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절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양안 전쟁에 대한 불안은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해당 발언에 문득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6년 당시 부대에서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몇 개월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물론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했다면 방어준비태세(데프콘)가 격상됐을 것이다. 이렇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미군이 항상 특정 시점을 꼭 집어서 경고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군 생활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럼 아퀼리노 사령관은 왜 하고 많은 시점

중에 2027년을 지목했을까. 이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결정될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리는 해다. 굳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일 수 있겠다.

다만 많은 전문가, 심지어 미국 정부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해 “중국이 전쟁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쟁으로 중국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고통,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반대로 시 주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과 반드시 통일해야 할 이유도 많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여러 어려운 경제 문제로 양손이 짝 차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만 침

## 데스크 서각

배준호  
국제경제부장



공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로부터 국내에서 치솟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 이슈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오랜 전략이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과거 단기적으로 군사력은 강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이른바 ‘수정주의 국가’ 들은 한층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3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권의 온갖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의외로 잘

버티는 것도 중국 지도부를 축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작은 사건이 도화선이 돼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시 군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해 독립기념일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가을 무장공비들을 태운 잠수함이 강릉시 인근 바다에서 좌초된 후 공비들이 침투한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앞으로의 논의 초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가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무력 사용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국도 양안 이슈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만해협은 우리 수출입에서 매우 중요한 경로다. 전쟁이 아니라 단순한 긴장 조성만으로 이 경로가 막히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baejh94@

## 대만해협, 한국에 사활적 무역경로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경시 안돼 대응방안 갖춰 돌발사태 주시해야

## 진료실 풍경

땅의 기운을 받으려면 5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아내의 신념을 극복하지 못해 30년이 넘도록 아파트 5층에만 살고 있다. 5층이면 엘리베이터 타기는 애매하고, 타려고 기다리기보다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는 것이 시간도 덜 걸린다. 하여 자연스레 걷는 습관이 생겼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전철역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항상 계단을 이용한다. 3, 4호선 전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의 갈아타는 통로에는 60여개가 넘는 가파른 계단이 가운데에, 양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갈아타려는 승객들의 98%는 에스컬레이터를, 1~2명 정도만 계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힘차게 걸어 올라가는 1~2명은 잠깐이지만 내게 적잖은 울림을 주곤 한다.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지 않는다. 페어웨이에서는 물론이고 홀과 홀 사이를 이동할 때도 걸어서 간다. 친구들과 카트를 타고 가며 수다를 떨어야 재미있고 아내에게 게임에 집중하라는

## ‘걷기’의 행복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1만3000보 내외 그러니까 8km 정도, 그냥 걷기는 힘든 거리를 게임을 하며 즐겁게 걷고 나면 골프 스코어에 상관없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른다.

불수룩놀라운 우리나라 대중교통인프라,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수많은 탈 것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도 오래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걷고, 덜 달고 더 거친 음식을 먹는다.

내가 이르는 것은 9988124를 실천하신 아버지를 본받기 위함이고,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고, 그리고 맹모삼천지교라고 엄마가 근무하는 병원에 둘러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가던 꼬마가 이제는 중학생이 돼 장차 의대에 진학하여 우리 병원을 이어받겠다는 꿈이 이뤄지려면 앞으로 16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유인철 안산유소야청소년과 원장

## 사설

#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 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역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 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 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뒤편에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19년 ‘12·16’ 조지의 허점을 뚫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 ‘내로남불’ 악취가 진동한다. 그리고도 큰소리니더 어이가 없다.

양 후보는 여당 공세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

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있다. 거들 혀를 차게 된다.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다. 이로써 불이 꺼질 것으로 여긴다면 양 후보와 민주당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대출 실행 방식에 대해 양 후보와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장이 엇갈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당국 혹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이번 사안은 불법·편법 의혹이나 총선 파장을 넘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엄중히 바라볼 일이다. 양 후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때마침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8일부터 2주간 금고 4곳에 대해 합동 검사를 벌이는 일정이 잡혀 있다.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한다. 하지만 연체율만 살펴보고 ‘오케이’를 선언할 국면이 아니다. 사기대출 의혹과 같은 반칙은 더 없는지 폭넓게 짚을 일이다. 필요하면 전수조사 착수도 망설일 계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의 핵심축이다. 그 축이 멀쩡하다면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엄두를 낼 수도 없는 흑막이 뒤늦게 드러날 리 없다.

# 일본 정치의 딜레마 ‘무당층 51%’

## 시론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정치학  
독도종합연구소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일본 방송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3월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42%에 달했다. 반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바란다”는 32%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본 국민이 유지를 원하는 사람보다 10%포인트(p)나 많다는 결과였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은 오랜만이다. 필자 기억으로는 2009년 8월 치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해서 민주당(당시)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 이후 처음 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2009년 당시처럼 지금 선거가 있으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 정권교체 여론 높지만 실현성 없어

2009년은 경제가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드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일본 서민의 체감경기가 매우 안 좋은 데다가 자민당의 정치 자금비리 문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력 부족 등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정권 교체는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유는 야권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자포행위로 야권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큰 큰 기회를 얻게 됐지만, 주요 야당인 입헌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민 눈높이에는 자민당처럼 야당들도 한심해 보인다. 지난달 1일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야마이 가즈노리 중의원의원이 예산안 표결을 늦추기 위해 2시간 54분이나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퍼포먼스일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리고 정치자금문제는 입헌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마 켄 중의원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입장

권(파티권) 수입 중 50만 엔(약 447만 원)이 수지 보고서에 미기재됐던 것이 발각되는 등 야당에 대한 부패 혐상까지 일어났다.

입헌민주당 최대의 문제는 현 집행부의 지도력 부족이다. 이즈미 겐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 존재감이 없다. 입헌민주당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 49세라는 젊은 이즈미 의원을 당 대표로 뽑았지만 미숙함만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 야권이 하나가 돼야만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 대항할 수 있지만, 야권 자체가 보수, 중도, 진보로 나뉘어 협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야당 분열되고 약해 집권능력 못보여

제1야당을 목표로 하는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에 대한 지지율도 주춤하고 있다. 2025년 예정된 오사카엑스포 개최를 강력히 추진해 유치 성공의 중심이었던 일본유신회이지만 현재 일본 내에서의 여론은 ‘엑스포에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쪽에 쏠리기 시작했다.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의 불륜, 성희롱 등 여러 건의 스캔들이 터진 것도 지지율 저하 요인이 됐다.

결국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야당도 신뢰할 수 없어서 무당층이 증가,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이에 자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일본 정계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TV가 3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였고 입헌민주당 지지가 8%, 일본유신회가 5%로 나타났다. 노마 켄 중의원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입장

<b>이투데이</b>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가져요, 세상에 없던 시간

세탁시간을 잊어보세요  
청소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유통기한도 전력효율도 모두  
모르고 살아도 좋아요

삼성의 시가 힘을 모으더니

집을 신경쓰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